

사서와 함께 행복한 차이 기 관



2008년 겨울호 Vol.07

ISSN 1976-8907

동서고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으며 내 삶도 그들처럼 찬란한 이야기가 되기를 꿈꾼다.
장엄한 인류사를 읽으며 나의 개인사도 것처럼 웅장할 수 있기를 꿈꾼다.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를 읽으며 언젠가 만날 행복한 사람을 꿈꾼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써 싸운 이야기를 읽으며 나 또한
그들처럼 용기 있게 살기를 꿈꾼다.

나는 책을 읽으며 꿈을 꾀다.
꿈을 꾸기에 합당한 나이란 없다.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 이희석의 「나는 읽는 대로 만들어진다」 중에서





02 특별기고

책, 그 고독한 아름다움

04 행복한 책읽기 속으로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문학 ▶ 개밥바라기 별 · 돼지우리 · 지리산에 사는 즐거움 · 외규장각 도서관의 비밀 1, 2 · 눈먼 자들의 도시 · 붉은 손가락 · 별난 친구들의 도쿄 표류기 · 천개의 찬란한 태양 · 연을 쫓는 아이 히말라야 도서관 ·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교육 ▶ 알파걸들에게 주눅 든 내 아들을 지켜라 · 부모가 학교다 · 아이 스케치북에 손대지 마라 · 외동아이 잘 키우는 55가지 지혜 · 책 읽는 엄마 책 먹는 아이 · 생각수업 · 21일 공부모드

인문과학 ▶ 조선 블로그 · 군주론 · 인생카페 · 다케의 눈 · 책읽기의 달인 호모 부커스

사회과학 ▶ 우체국 이야기 · 나는 읽는 대로 만들어진다 · 당신이 답이다 · 나쁜 사마리아인들

과학 ▶ 여자의 뇌, 여자의 발견 · 우주에서, 이소연입니다 · 천재지변 탐사학교 · 영화 속의 바이오 테크놀로지

예술·취미 ▶ 페스티벌 제너레이션 · 이 영화를 보라 · 무서운 그림 · 에피소드로 엮은 클래식 음악 100 · 샤넬, 미술관에 가다 · 그림 속에 노닐다 · 사진가의 여행법

어린이 ▶ 어린이를 위한 경제습관 · 주니어 생각의 탄생 · 토비의 특별한 여름 · 최악의 짝꿍 큰 늑대 작은 늑대 · 이야기 아저씨 청계천 징검돌 · 쓸모 있는 자원 쓰레기 · 교과서 속 구석구석 우리 문화재 · 우리 집 우렁이각시 · 생각이 말을 할 때 · 레모네이드 전쟁 · 세상의 아이야, 너희가 희망이야 · 엄마, 할머니가 이상해요 · 나한테 화학이 쏟아져!

32 독서문화운동! 그 첫 번째 이야기

북스타트 운동 : 태어나면서 처음 사귄 친구, 책

34 현장 엿보기 :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신나는 한글교실

36 함께 가는 학교도서관 여행 : 경기도수원교육청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수원교육청이 앞서갑니다!

40 이용자가 선택한 즐겨찾는 책 FIVE

42 찰칵! 도서관문화진단

한국의 아름다운 도서관을 꿈꾸다

45 쉼터

46 2009년을 맞이하는 중앙도서관 사서들의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설렘



책, 그 고독한 아름다움

글·김국희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장학관

내면의 고독한 공간에서 피어나는
아득한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취하기 위해 우
리는 책을 펴드는 것이다.



● 책은 언어라고 하는 기호의 집적물이다. 책은 체력의 원형인 '존재-살아감'을 언어로 기호화함으로써 탄생한다. 기호화 과정은 실체가 관념의 세계로 추상화되는 과정이다. 그 허물벗기는 진정성을 매개로 할 때 가능하다. 잠자리가 탈각을 하기 위해서는 햇빛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다.

거꾸로,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기호를 사물과 생활로, 존재와 삶으로 풀어내는 일이다. 그것은 악보를 관현악으로 연주해 내는 과정,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공식 $E=mc^2$ 으로부터 태양빛을 유추하는 과정과 같다. 거기에는 아름다움과 진정성이 담보되어 있다.

책에 담긴 질서와 조화, 생명과 풍요, 섬세한 감성과 명징한 이성, 진정성의 힘 같은 절대적 가치는 '존재-삶' ↔ '기호-언어'의 변증법적 전환 과정에서 끊임없이 창조된다. 책을 쓰는 일, 책을 읽는 일은 삶의 절대적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 『토지』라고 하는 언어 집적물은 서희와 길상이, 용이, 월선이 그리고 봉순네나 김 훈장이나 윤보 목수 등 사람들이 땅(土地)에 터하여 제각기 한을 지니고, 그래도 정(情)을 매개로 살아가는 마을에 다름 아니다. 『토지』의 기호들은 그 마을의 관념적 표상이다.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기호 체계는 푸른 하늘과 상호 변환된다.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이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누워 있다가 눈을 떴을 때, 눈에 가득 들어온 것은 맑고 깊고 푸른 하늘이었다. 깊고 푸른 하늘이 계시하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무한 순수를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기호의 집합이 『전쟁과 평화』이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세상의 모든 소설 속에 등장하는 젊은이 중 가장 아름답다는 알료샤라는 젊은이를 살아 있는 현실로 독자 앞에 등장시키기 위한 언어적 장치이다. 알료샤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눈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다.

『화두(話頭)』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담은 책이다. 이 물음은 한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인류 공통의 존재 양상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혁명을 위한 전제이기도 하고, 역사를 마주하고 면벽(面壁)한 사람의 명상의 주제이기도 하고, 무신론과 신앙 사이를 경계 짓는 어두운 심연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한 관념들은 『화두(話頭)』의 언어 기호들을 통하여 디아스포라적 존재의 원형성으로 치환된다.

● '존재-삶' ↔ '기호-언어'의 변증 과정에서 생성되는 창조물들은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의 옷을 입히고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 창조물들은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은 내면성의 아름다움이다.

내면의 고독한 공간에서 피어나는 아득한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취하기 위해 우리는 책을 펴드는 것이다.

문학

순서	주제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대상	추천인
1	성장소설	개밥바라기별	황석영	문학동네	청소년	포천 채성희
2	성장소설	돼지우리	수산나 알라코스키	상상공방	일반	광주 김신혜
3	사진 에세이	지리산에 사는 즐거움	이창수	터치아트	일반	중앙 노재금
4	역사 추리	외규장각 도서관의 비밀 1, 2	조완선	휴먼앤북스	청소년	중앙 허춘자
5	인간본성	눈먼 자들의 도시	주제 사라마구	해냄	일반	중앙 함은경
6	가족	붉은 손가락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일반	김포 김성옥
7	일본문학	별난 친구들의 도쿄 표류기	다카노 히데유키	미래인	청소년	포천 김지영
8	이슬람·여성	천개의 찬란한 태양	할레드 호세이니	현대문학	청소년	평택 유현진
9	성장소설	연을 쫓는 아이	할레드 호세이니	열림원	청소년	중앙 이정주
10	자선사업	히말라야 도서관	존 우드	세종서적	청소년	평택 윤영희
11	성장소설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하이타니 겐지로	양철북	청소년	중앙 박재연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교육

순서	주제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대상	추천인
12	아들교육	알파걸들에게 주눅 든 내 아들을 지켜라	레너드 삭스	웅진지식하우스	일반	포천 정부중
13	자녀교육	부모가 학교다	요한 크리스토프	달팽이 출판	일반	중앙 김정미
14	미술교육	아이 스케치북에 손대지 마라	김미영	동아일보사	일반	김포 안선영
15	좋은부모	외동아이 잘 키우는 55가지 지혜	다고 아키라	문학수첩라들북	일반	여주 전미향
16	독서교육	책 읽는 엄마 책 먹는 아이	한복희	여성신문사	일반	평택 박혜영
17	참교육	생각수업	아마모토 미메	열음사	교사, 학부모	평택 윤영희
18	공부습관	21일 공부모드	정철희	밀리언하우스	청소년	중앙 함은경

인문 과학

순서	주제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대상	추천인
19	조선시대	조선 블로그	문명식 이현	생각과 느낌	청소년	포천 유화연
20	정치사상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까치글방	일반	평택 박상미
21	인생	인생카페	존 스트레레키	돌출판사	청소년	중앙 김마숙
22	법	디케의 눈	금태섭	궁리	일반	김포 정은성
23	책읽기	책읽기의 달인 호모 부커스	이권우	그린비	청소년	중앙 강수연

순서	주제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대상	추천인
24	우편의 역사	우체국 이야기	이종탁	황소자리	일반	김포 김성옥
25	독서	나는 읽는 대로 만들어진단	이희석	고즈원	일반	광주 김미진
26	성공처세술	당신이 답이다	정철화, 이정선	무한	일반	광주 김윤희
27	경제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부키	일반	중앙 이정주

사회
과학

순서	주제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대상	추천인
28	뇌과학	여자의 뇌, 여자의 발견	루안 브리젠딘	리더스북	일반	김포 이승희
29	우주	우주에서, 이소연입니다	김호진	샘터	일반	평택 서부남
30	자연재해	천재지변 탐사학교	자연탐사학교	청어람미디어	일반	광주 김지은
31	생명과학	영화 속의 바이오 테크놀로지	박태현	생각의나무	일반	중앙 강수연

과학

추천 기간 | 2008. 10. ~ 2008. 12.

이 도서들은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홈페이지(www.happylib.or.kr)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순서	주제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대상	추천인
32	페스티벌	페스티벌 제너레이션	김지숙외	브이북	일반	김포 정은성
33	영화	이 영화를 보라	고미숙	그린비	일반	여주 이아란
34	미술감상	무서운 그림	나카노 교코	세미콜론	일반	중앙 이은형
35	음악·클래식	에피소드로 엮은 클래식 음악 100	모리모토 마유미	반디	일반	중앙 윤정화
36	미술사	샤넬, 미술관에 가다	김홍기	미술문화	일반	포천 이노경
37	한국화화	그림 속에 노닐다	오주석	솔	일반	중앙 김충희
38	사진·여행	사진가의 여행법	진동선	북스코프	일반	김포 이승희

예술

순서	주제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대상	추천인
39	경제	어린이를 위한 경제습관	어린이동화 연구회	꿈꾸는 사람들	초4-5	김포 정은교
40	호기심·상식	주니어 생각의 탄생	로버트루트벤스타인	에코주니어	초등전학년	포천 김지영
41	삶의 소중함	토비의 특별한 여름	발레리 흡스	주니어김영사	초5-6	광주 최혜숙
42	친구·우정	최악의 짝꿍	하나가타 미쓰루	주니어김영사	초3-4	평택 김혜정
43	우정	큰 늑대 작은 늑대	니딘 브뤼코슴	시공주니어	유아	중앙 유승림
44	문화·역사	이야기 아저씨 청계천 징검돌	원유순	아이앤북	초4-5	중앙 강수연
45	환경	쓸모 있는 자원 쓰레기	한미경	주니어김영사	초등전학년	중앙 김미영
46	문화재	교과서 속 구석구석 우리 문화재	신웅섭	게임북스	초5-6	중앙 김영우
47	아빠	우리 집 우렁이각시	이금이	보물창고	초3-5	김포 김자연
48	생각 표현	생각이 말을 할 때	엘레나 로웬탈	중앙출판사	초5-6	포천 채성희
49	경제	레모네이드 전쟁	재클린 데이비스	개암나무	초4-5	광주 이미경
50	어린이 권리	세상의 아이야, 너희가 희망이야	베르나르베르베르 외	푸른나무	초등전학년	평택 김석주
51	치매·가족애	엄마, 할머니가 이상해요	이자벨 로시놀	문학동네	초4-5	중앙 강명희
52	화학	나한테 화학이 쏟아져!	김희정	토토북	초4-6	중앙 김미영

어린이



개밥바라기별

황석영 | 문학동네 | 2008 | 287p.
이용대상 : 청소년
주제 : 성장소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채성희



돼지우리

수산나 알라코스키 | 상상공방 | 2008 | 391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성장소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김신혜

나는 원래 성장소설을 좋아하지 않는다. 왠지 진부하고 뻔한 내용의 이야기일 것 같아서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너무 평범하고 무난하게 흘러갔던 내 어린 시절과 책 속 인물들의 특별하고도 굴곡 있는 이야기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과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부러움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작가 황석영의 자전적 성장소설이다. 과거엔 집단만을 중시하며 개인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집단의 한 부분으로만 간주하여, 지금까지 개인의 변화 과정이 중심이 되는 성장소설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출판되지 않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사춘기에서부터 스물한 살 무렵까지 황석영 자신의 개인적인 방황과 잃어버린 내면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자전적' 성장소설이 아니었다면, 아마 책을 읽는 중간에 덮어버렸을지도 모른다. 방황, 고등학교 자퇴, 한일회담 반대 데모, 공사장 막노동, 오징어잡이배 생활, 승려로 출가, 자살 시도, 베트남전쟁 참전 등 진짜 소설 같은 그의 긴 방황의 기록은 준이라는 인물로 투영되어 처음 내가 가졌던 성장소설에 대한 편견을 깨 주었다.

금성을 순우리말로 새벽에 떠 있으면 '샛별'이라고 하고, 가족들이 모두 저녁식사를 마치고 남은 밥으로 개밥을 줄 때쯤에 떠 있으면 '개밥바라기별'이라고 한다. 개밥바라기별.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외롭게 느껴진다. 반짝반짝 밝게 빛나는 인생의 최고 절정의 시기가 지나면 언젠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 책에서 준이는 혼돈과 긴 방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하지만 곧 새벽이 다가올 것이기에 두렵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글의 처음에 어머니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책을 읽고 있노라면, 한 개인의 성장과정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깊은 사랑 또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돼지우리』는 저자 수산나 알라코스키의 자전적 소설이다. 핀란드인인 저자는 어린 시절 스웨덴으로 건너와 정착했다. 현재 핀란드 하면 유럽 선진국이며 국민복지정책이 잘된 나라라는 생각을 하기에 문득 이해가 잘 안 되었다. 그러나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현재가 아닌 핀란드가 스웨덴과 러시아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양 국가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했고,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기도 했던, 핀란드의 어렵던 시기의 이야기임을 밝혀둔다.

주인공 레나는 스웨덴 사람들이 비하하듯 내뱉는 '돼지우리'에 정착하게 된다. 핀란드 이주민의 스웨덴 거주지 위스타드 지역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 왔지만 이곳에서도 어려움은 계속된다. 예전에 우리가 겪어 왔던 산동네 혹은 몇십 년 전의 못살던 시대의 이야기처럼 레나의 돼지우리도 그렇게 나에게 다가왔다. 돼지우리는 소외계층의 가난과 절망 그리고 알코올에 취해서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고달픈 인생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설임에도 매우 적나라한 일상을 그려내고 있다. 서글픈 어른들의 인생사는 레나의 현실을 더욱 슬프게 만든다. 현실을 부정하며 학교가 유일한 희망인 아이, 레나. 가난과 절망인 현실에서 벗어나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여서 마음에 더 다가왔고 닭장 같은 곳에서의 고단한 삶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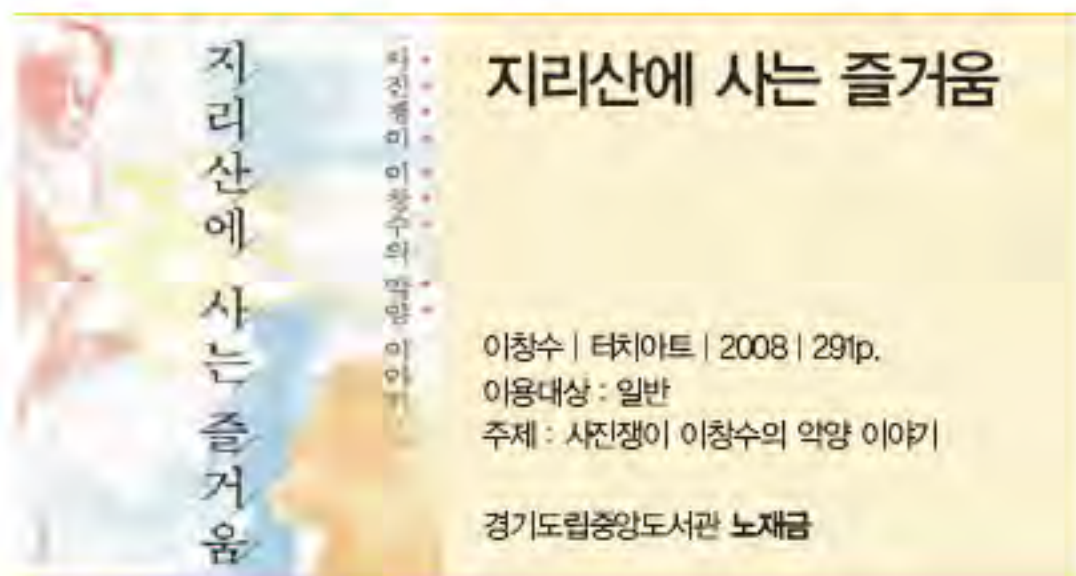
레나와 이웃들의 이야기가 전혀 낯설지 않음은 우리가 예전에 겪어 왔거나 TV를 통해 보아 왔던 생활상이기 때문이다. 비록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성장했으나, 그 내면의 의지와 단단함을 잃지 않은 레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레나의 용기를 통해 배운다.

주제관련도서 ▶ 성장소설 속으로

1. 직녀의 일기장 / 전아리, 현문미디어, 2008.
2. 지상에 숍가락 하나 / 현기영, 실천문학사, 1999.
3. 청호반새 / 이문일, 어문학사, 2008.

주제관련도서 ▶ 가난과 혼란 속에서도 꿋꿋이 삶을 살아가는 성장소설

1. 바람을 만드는 소년 / 폴 플라이쉬만, 책과콩나무, 2008.
2. 스피릿베어 / 벤 마이켈슨, 양철북, 2008.
3. 개 같은 내 인생 / 레이디르 옌손, 문예춘추사, 2008.



지리산에 사는 즐거움

이창수 | 터치아트 | 2008 | 291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사진쟁이 이창수의 악양 이야기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노재금



외규장각 도서의 비밀 1, 2

조완선 | 휴먼앤북스 | 2008 | 633p.
이용대상 : 청소년
주제 : 역사추리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허춘자

『지리산에 사는 즐거움』은 사진기자로 일하던 도회인이 지리산 기슭에 내려가 살며 느끼는 생활 이야기다. 16년 동안 사진기자로 일했던 그는 사진 찍는 일을 좋아했지만, '무얼 하면서 살아왔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왜 사는가?' 라는 생각으로 고민에 빠진다. 그 생각의 끝은 '자연' 이고 곧 '산' 이란 결론으로 이어졌고, 늘 동경해 오던 흙으로 가고픈 마음을 단순히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그 사는 재미와 즐거움을 책에서 풀어내고 있다.

악양마을에 살며 느끼는 한가로움과 정취는 읽는 이로 하여금 책을 읽는다는 느낌보다는 한 편의 그림,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편안한 마음이 들게 한다. 옆집 할머니의 일상, 열 번 만나면 예닐곱 번은 막걸리 사주고 가리는 동네 어르신, 사철 피고 지는 들꽃과 꽃, 계절마다 이어지는 동네 운동회, 대보름 달집태우기, 동네 곳곳의 모습, 아들 전화에 무작정 나와 기다리는 할머니, 구례장 약초 할머니, 구례정터 모습, 구름으로 덮인 산중에 조명등으로 밝힌 것 같은 햇살을 받은 산등성이, 이슬 머금고 있는 제비꽃, 꽃잎 떨어질까 저어되는 하얀 연꽃,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코스모스까지……. 모두 우리 이웃, 나의 일상처럼 편안하게 느껴진다.

『나이 마흔엔, 무엇을…….』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고, 한 번쯤은 되뇌는 대사이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나만의 대사를 마음 밖으로 끌어내어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야기. 작가의 사진이 정교하고 정확한 샷으로 눈을 사로잡고, 간결하면서 무디지 않은 글이 또 한번 마음을 쥐고 흔든다.

『외규장각 도서의 비밀』은 한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 각국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외규장각 도서의 실체를 놓고 벌이는 사투를 박진감 있게 보여주는 추리소설이다. 13세기, 조선에서 만들어진 위대한 유산, 고대문헌에만 기록되어 있고 현존하지 않는 책, 『직지심경(直指心經)』 보다 앞선 금속활자본의 실체를 찾아 각국의 사서(司書)들이 개인 또는 자국의 이익을 명분으로 벌이는 음모, 배신, 죽음 등을 현실인 양 긴박감 있게 풀어가고 있다. 비밀을 찾아 벌이는 숨 막히는 책의 전쟁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긴장감을 더해 가고, 사서들의 연쇄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글의 전개는 갈수록 더해지는 의문에 흥미를 배가시킨다. 또한, 실화와 픽션이 치밀하게 얹힌 소설의 구성은 꼭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듯한 짜릿한 쾌감을 주고 새삼 우리의 먼 조상들이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전설 속의 고서가 곧 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 착각과 흥분을 불러일으킨다.

저자는 2년여 동안 우리 고문서의 발자취를 복원하기 위해 세계 화귀 고문서 자료들을 수집해 왔다고 한다. 그 탄탄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19세기 말 우리나라가 처했던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름 없는 수많은 민초들과 사관, 학자들에 의해 지켜지고 전승되어 온 우리의 위대한 유산을, 21세기의 우리는 얼마나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반문해보게 한다.

여전히 악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문화재 또한 강대국만이 지킬 수 있다는 논리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씁쓸하다. 그러나 전설을 현실로 인도하려는 순례자의 길, 그 험난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 난 감히 사서라고 단정하고 싶다. 적어도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주제관련도서 ▶ 나를 위해 떠나는 여행

1. 지리산 편지 / 이원규, 대교비텔스만, 2008.
2. 당분간은 나를 위해서만 / 최갑수, 예담, 2007.

주제관련도서 ▶ 재미있는 역사추리소설

1. 뿌리 깊은 나무 1, 2 / 이정명, 밀리언하우스, 2006.
2. 13번째 마을 / 로맹 사르두, 열린책들, 2006.
3. 호박방 1, 2 / 스티브 베리, 밝은세상, 2006.



눈먼 자들의 도시

주제 사라마구 | 해냄 | 2002 | 472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인간본성 · 사회체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함은경



영화는 '자들의 도시' 국내 대개봉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눈이 멀어 버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중 나 한 사람만이 볼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나의 삶이 눈먼 다수의 삶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소설은 내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독특한 설정으로 시작한다.

사람들의 눈이 하얗게 멀어 버리는 현상이 전염병처럼 온 도시, 온 나라에 급속히 퍼진다. 정부는 서둘러 이들을 수용소에 격리시키지만 곧 모든 이의 눈이 멀어 버린다.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도 어렵게 된다. 자신이 의사였던 거리의 여자였던, 부자였던, 가난했던 이제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저 들리는 목소리만이 곧 그 사람의 존재일 뿐이다. 모두가 볼 수 없는 세상이 되자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 온 도덕과 양심은 파괴되어 간다. 이 끔찍한 세상에 홀로 눈이 멀지 않은 여자가 있다. 그녀는 인간성이 무너져가는 처참한 광경에 혼란스러워하며 차라리 눈이 머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자신의 사명감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그녀의 이러한 선택은 책을 읽는 내내 인간 본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야 했던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마지막에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눈을 뜬 채 무엇을 보고 있는가. 본질이 아닌 누군가 보여주는 껍데기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기주의와 윤리의식 부재, 폭력적인 권력 집단은 단순히 소설 속 눈먼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저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답게 복잡하고 괴로운 메시지를 긴장감 있게 전달한다. 누구의 이름도 어느 도시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등장인물의 대화도 정확히 구분하지 않은 독특한 문체는 우리를 소설에 더욱 몰입하게 한다.



붉은 손가락

히가시노 게이고 | 현대문학 | 2007 | 291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가족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 김성욱

원래 추리소설은 거의 읽지 않는 편인 나는 정말 우연하게 이 소설을 접하게 됐다. 처음 두세 장을 읽을 때는 작가에 대한 사전 정보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저 순수문학이리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작가인 '히가시노 게이고'는 일본 추리문학계의 대부 격이었다. 그의 전작 중 유명한 작품은 '방과후', '용의자 X의 헌신' 등이 있다.

추리소설 치고는 상당히 정적으로 전개되는 '붉은 손가락'(소설이 정점으로 치달을 때쯤 왜 제목이 붉은 손가락인지 알게 된다)은 평범한 일본의 한 가정을 무심코 들여다보며, 그 안에 참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족간의 갈등과 아들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소녀 살인'의 전모(全貌)를 차분히 따라가고 있다. 이 소설은 추리소설임에도 상당히 전개가 느린 편인데, 짜임새가 튼튼해서 서서히 감정을 정점으로 몰고 가는 힘이 있다. 종반부에 노모의 치매가 서서히 거짓으로 밝혀지는 부분에서는 여러 의문점이 하나씩 풀려가며 감탄을 자아낸다. 특히 사건을 해결해 가는 '가가 교이치로'라는 형사는 처음부터 사건에 대한 추리를 더해가며 모든 것을 안 뒤에도 스스로 밝혀내기를 꺼린다. 사건의 관련자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동시에, 모든 사건의 협조적인 서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독자에게는 일종의 해설자이기도 한 셈이다.

이 소설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기 그지없는 가정집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사연 없는 집은 없다'는 말처럼, 무시무시한 무언가가 그 안에서 꿈틀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 설정은 그 자체가 주는 대비적인 느낌 때문에, 이를테면 정적마저 감도는 듯한 평화로운 동네에서 10미터만 더 걸어들어 가면 살인의 은폐를 위한 가족모의(謀議)와 치매로 위장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외로운 노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비교적 정석에 충실한 추리소설이라는 인상과 함께 짜임새 있는 구성 덕에 문학성과 재미를 두루 만족시켜주는 소설이다.

주제관련도서 ▶ 주제 사라마구의 다른 작품

1. 도플갱어 / 주제 사라마구, 해냄, 2006.
2. 눈먼 자들의 도시 / 주제 사라마구, 해냄, 2007.
3. 이름 없는 자들의 도시 / 주제 사라마구, 해냄, 2008.

주제관련도서 ▶ 일본 현대 추리소설 베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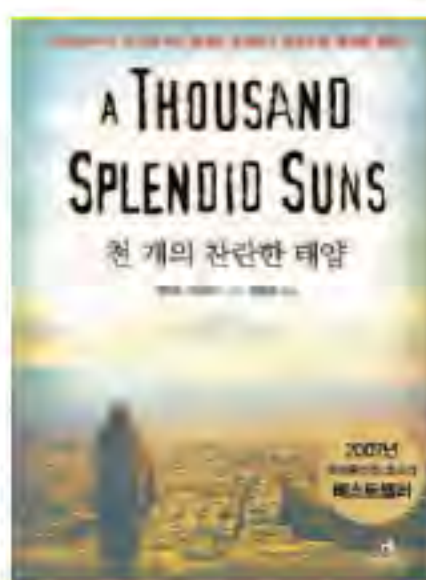
1. 용의자 X의 헌신 /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2006.
2. 스나크 사냥 / 미야베 미유키, 북스피어, 2007.
3. 악인 / 요사다 슈이치, 은행나무, 2008.



별난 친구들의 도쿄 표류기

다카노 히데유키 | 미래인 | 2008 | 287p.
이용대상 : 청소년
주제 : 일본문학 · 일본기행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김지영



천 개의 찬란한 태양

할레드 호세이니 | 현대문학 | 2007 | 576p.
이용대상 : 청소년
주제 : 이슬람 · 여성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유현진

시선을 끄는 알록달록한 표지와 별난 제목, '엔터테인먼트 논픽션'을 추구하는 작가의 생각으로 이 책은 유쾌하고 흥미롭다. 다른 문학 작품들과는 달리 작가가 직접 경험한 일들을 기행문 형식으로 간결하게 써내려가 지루함 없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도쿄를 방문한 별난 외국인 친구 여덟 명의 이야기를 통해 여덟 가지의 독특한 도쿄 생활을 그려간다.

첫 번째, 무도(전위무용)를 즐기며 동양의 신비를 찾으려는 프랑스인 실비아
두 번째, 일본의 마이클 잭슨을 꿈꾸는 자이르인 윌리
세 번째, 오지랖 넓은 스페인어 과외선생인 팔로마
네 번째, 다카노의 졸업논문에 도움을 준 콩고인 동가라 아저씨
다섯 번째, 일본어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 페루인
여섯 번째, 회전초밥을 좋아하는 중국인 루다후 교수
일곱 번째, 후세인 정권에서 도피해 온 이라크인 알리
여덟 번째, 시각장애인이지만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수단인 마후디

여덟 명의 표류기가 '도쿄'라는 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인지 의아할 정도로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엔 여덟 개의 나라를 몇 시간 만에 여행한 듯한 기분이 든다.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도쿄와 자신들의 나라 이야기 그리고 작가 자신이 보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데 어우러져 별나기도 하고 일상적인 느낌이 들기도 한다.

작가 다카노 히데유키의 모토인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아무도 모르는 것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것을 재미있게 쓴다.(p208)'처럼 '별난 친구들의 도쿄 표류기'는 여타 기행문학과는 다른 독특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이다.

테러, 내전, 탈레반, 납치 등은 개인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떠오르는 단어들이다. 생소한 그 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아름다운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만큼, 비극적으로 다가오는 아프가니스탄. 그곳에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궁금하여 이 책을 펼치게 되었다. 이 책의 작가인 할레드 호세이니는 카불에서 태어났으나 미국으로 망명하여 현재 의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을 쫓는 아이』에 이어 이 책을 펴냄으로써 아프가니스탄과 그곳의 인권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책에는 마리암과 라일라라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온다. 책의 초반에는 사생아로 태어나 부모에게 버림받는 마리암과 비교적 좋은 가정에서 꿈을 갖고 멋진 미래를 꿈꾸는 라일라의 성장과정이 따로 전개된다. 그러나 중반 이후 소련침공, 내전, 탈레반 정권 등 비극적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 여인이 만나고, 함께 겪게 되는 아프가니스탄의 비참한 여인들의 삶의 모습이 전개된다. 그리고 고난의 삶 속에서 피어난 두 여인의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이 대미를 장식한다.

책 두께가 다소 두껍고 초반에는 약간 지루할 수 있지만 책장이 넘어갈수록 코끝이 찡한 장면들이 기다리고 있어, 읽고 나면 한 편의 영화를 본 듯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더불어 생소했던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와 문화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고, 사랑을 하고 미래를 향해 꿈을 꾸는 우리와 닮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전쟁으로 인해 짓밟혀 버린 안타까운 삶 앞에 숙연해 지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일말의 희망도 없을 것 같은 잿빛의 땅에서도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사랑과 희생이 있어 또 다른 희망을 낳는다. 제대로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마리암의 희생이 남긴 천 개의 찬란한 태양은 우리의 마음과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주제관련도서 ▶ 다카노 히데유키의 다른 작품들

- 환상의 괴수 무뎀베를 찾아라 / 다카노 히데유키, 미래인, 2008.
- 극락 타이 생활기 / 다카노 히데유키, 사공사, 2008.
- 와세다 1.5평 청춘기 / 다카노 히데유키, 책아름다운사람, 2007.

주제관련도서 ▶ 이슬람권 여성의 삶

- 카불의 책장수 / 오스네 사야에르스타드, 아람드리미디어, 2006.
- 무크타르 마이의 고백 / 무크타르 마이, 아람, 2006.
- 차도르를 벗겨라 / 베호아트 모알리, 생각의나무, 2004.



연을 쫓는 아이

할레드 호세이니 | 열림원 | 2008 | 564p.
이용대상 : 청소년
주제 : 성장소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이정주



히말라야 도서관

존 우드 | 세종서적 | 2008 | 256p.
이용대상 : 청소년
주제 : 자선사업, 자원봉사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윤영희

영화보다 소설 읽기가 더 재미있는 이유는 소설은 영화와 달리 읽는 사람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소설 읽기는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도 한동안 소설 속 여운이 남아 책의 표지를 이리저리 훑어보기도 하고 지은이나 옮긴이의 말 등을 찾아 읽게 된다. 『연을 쫓는 아이』 또한 다 읽고 나서도 한동안은 책을 옆에 두고 만지작거리야 했다.

『연을 쫓는 아이』는 지난해 우리 국민의 인질 사태로 잘 알려진 아프가니스탄을 배경으로 한 성장소설로, 현직 의사이면서 소설가이기도 한 할레드 호세이니의 첫 장편소설이다. 2004년 미국도서관협회 '청소년이 읽을 만한 성인 도서'로 선정되기도 한 이 소설은 주인공 아미르가 소년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흥미롭고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책을 읽는 내내 웃음 짓게 하던 아미르와 하산의 어린 시절에서는 마치 내가 그들이 된 듯, 나도 내 어린 시절의 그 개울과 논과 밭으로 마음이 두둥실 떠다니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의 즐거운 어린 시절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고 아미르는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망명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순탄치는 않았지만 어찌 됐던 아미르는 소설가로서 성공하고 그런 아미르에게 어느 날 파키스탄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어린 시절, 연에 얽힌 하산과의 그 사건 이후 내내 마음속의 짐이 되었던, 잊고 사는 듯 했지만 잊을 수 없었던 그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어투의, 어릴 적 정신적 지주 라힘 칸으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오너라, 다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단다."

이제 아미르는 안정된 삶의 기반을 뒤로한 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속죄를 위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 어릴 적 순수함의 회복을 위해 내란의 격전지인 조국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하는 아미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오지에 3천 개의 도서관, 100만 권의 희망을 전한 한 사나이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세계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촉망받는 이사 자리를 과감히 버리고 책이 절실히 필요한 세계 오지의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고, 미래를 열어 준 자선사업가 존 우드의 기적 같은 이야기이다.

히말라야 트레킹 중 우연히 방문하게 된 한 학교에서 책 없는 도서관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던 그는, "우드 씨, 책을 가지고 다시 와 주세요."라는 교장선생님의 한 마디를 계기로 삶의 방향을 대전환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커다란 열정을 품게 된다. 책 모으기로 시작한 도서관 프로젝트는 'Room to Read' 재단을 설립하여 네팔을 시작으로 6년 동안 인도, 스리랑카,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 도서관 2,300개, 학교 200개를 설립하고 100만 권의 책을 기증하였다. 세계 도시를 누비며 기금을 모으고,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사업을 확장하며 자신의 모든 열정을 불태우는 존 우드. 쉴 틈 없이 바쁜 시간 때문에 존 우드의 개인적인 삶은 엉망일 수밖에 없지만 그를 기다리는 수백만의 어린이가 있고,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꿈이 있어 그는 행복하다.

저자가 도서관에 대한 기억을 술회한 대목을 보면, 그가 가진 위대한 열정의 근원적인 힘은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독서습관과 책에 대한 믿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어려서부터 유난히 책을 좋아하고 즐겨봤던 그는 수많은 책을 닦치는 대로 읽었으며, 주말마다 공공도서관을 여행하고 심지어 수업시간에도 몰래 책을 읽으며 책 속의 세상을 만났다. 그런 그에게 책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내가 어렸을 때 많은 책을 읽어주신 어머니는 내가 가진 최고의 행운이었다. 이제는 내가 책을 읽어 드릴 차례다"라고 말한다.

그밖에 세계 굴지의 회사에서 익힌 비즈니스 마인드와 경영철학을 사회 사업에 적용해 성공한 저자는 독자들에게 다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마무리한다. "말을 멈추고 행동하라."

주제관련도서 ▶ 내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되살려 보자

1. 사라지는 아이들 / 로버트 스원델스, 책과공나무, 2008.
2. 개밥바라기별 / 황석영 지음, 문학동네, 2008.
3. 모래밭 아이들 / 하이타니 겐지로 지음, 햇살과나무꾼, 2008.

주제관련도서 ▶ 함께 나눠요, 행복한 지구촌!

1. 성공한 CEO에서 위대한 인간으로 / 앤드루 카네기, 21세기북스, 2005.
2.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 / 한비야, 푸른숲, 2005.
3. 세계가 내 가슴에 다가왔다 / 신광식, 개마고원, 2005.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하이타니 겐지로 | 양철북 | 2008 | 346p.
이용대상 : 청소년
주제 : 성장소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박제연

나는 얼마 전 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강의 중 그분은 감명 깊게 읽었던 여러 권의 책을 소개했다. 그중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를 읽고 선생님으로서의 확고한 교육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나도 꼭 한 번 읽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의 주인공 데쓰조는 말도 하지 않고, 글도 쓸 줄 모르고,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으며, 오직 파리에게만 강한 집착을 보이는 아이다. 게다가 난폭하고, 쓰레기처리장에 살고 있어 학교에서는 외톨이로 지낸다. 데쓰조의 담임선생님인 고나미는 대학을 갓 졸업한 신참내기로 여리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다. 교실에서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데쓰조 때문에 고나미 선생님은 학부모들과 교장선생님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지체아 미나코까지 맡아 다른 선생님들과의 갈등 또한 더욱 깊어져 간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과 갈등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늘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는 아다치 선생님 덕분에 고나미 선생님과 데쓰조는 함께 파리 연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날 햄 공장의 파리 떼를 처리하게 되면서 데쓰조는 파리 박사로 신문에까지 실리게 된다.

이 책은 주변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들의 갈등 속에서 고나미 선생님의 헌신과 노력으로 문제아였던 데쓰조가 마음의 문을 열고 웃음을 되찾게 되는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아름다운 교육 현장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겨울이 다가오니 우리의 마음도 차가워지는 듯하다. 이럴 때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와 함께한다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주제관련도서 ▶ 어른을 위한 동화

1. 바다로 간 고래바위 / 이순원, 굿북, 2008.
2. 어린 물결과 늙은 파도 이야기 / 짐 발라드, 씽크뱅크, 2008.
3. 항아리 / 정호승, 열림원, 2008.



알파걸들에게 주눅 든 내 아들을 지켜라

레너드 삭스 | 웅진지식하우스 | 2008 | 291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아들 교육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정부중

남자아이들이 심상치가 않다. 똑똑하고 당찬 알파걸들에게 밀려 어려서 부터 남자아이들은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고 집안에서 게임과 TV에 의존하며 학교를 회피하기도 한다. 이러한 남자아이들은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도 지속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습관으로 여성들에게 도태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표현이 다소 비약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상위 대학과 공무원 합격자, 대학교 장학금 수혜자의 여성 비율이 많은 우리나라의 모습만 봐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럼 원더우먼처럼 당찬 여자아이들 속에서 남자아이가 흔들리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도 굳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미국의 가정의학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레너드 삭스가 쓴 『알파걸들에게 주눅 든 내 아들을 지켜라』는 이러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생물학적 특성과 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하여 남자아이에 알맞은 학습방법과 부모님의 지도방법, 제도적인 사회인습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남자아이와 부모와의 상담 장면도 수록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남자아이가 뒤처지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남자아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학교 교육의 문제점, 남성보다 여성이 더 빨리 성숙하는 환경 호르몬의 영향, TV나 대중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아버지상의 부재 등을 그 이유로 본다. 해결책으로 배움의 지식과 경험적 지식의 균형, 조급한 장애진단 금지, 플라스틱 사용의 자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아들을 부모의 바람이나 주입식 교육의 틀에 맞춰 키우려 하지 말고 아들의 특성을 살려 이 세상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게 만들자. 바로 이 책이 아들의 기를 살리고 진짜 힘을 찾게 하는 첫걸음이 되어줄 것이다.

주제관련도서 ▶ 남자아이들을 위한 교육방법

1. 남자아이 키우기 / 편집부, 룽셀러, 2000.
2. 남자아이 씩씩하게 키우기 / 하타노 미키, 세론북스, 2002.
3. 남자아이 여자아이 키우는 법이 다른 이유 / 베라비르긴빌, 큰나, 2006.

부모가 학교다



부모가 학교다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 달팽이출판

2008 | 224p.

이용대상: 일반

주제: 자녀교육 지침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정미

아이 스케치북에 손대지 마라

자녀 교육의 99%는 감성이 좌우된다고 한다.
한국 엄마가 꼭 알아야 할 유럽의 감성 교육법

아이 스케치북에 손대지 마라

김미영 | 동아일보사 | 2008 | 207p.

이용대상: 일반

주제: 미술교육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 안선영

우리 시대의 부모들이 아이를 기르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더 똑똑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에 가서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만 너무 치중하는 부모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듯하다.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1920년 독일에서 시작된 공동체로, 이웃을 사랑하고 단순하고 평화롭게 살고자 하며 억압받는 사람들 편에 서고 사람들을 섬기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는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이 책을 통해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자녀양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기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인 만큼 저자가 강조하는 교육과 양육방법 역시 다분히 기독교적 신념과 관점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종교적 관점을 배제하고서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같을 수밖에 없으며 이 책은 그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주제별로 자녀 양육 방법, 부모가 가져야 할 기준이나 관점, 브루더호프 공동체 내에서의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가진, 사랑이 가득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은 결국 '사랑'이며 그것의 시작은 참된 가정이다. 사랑이 많은 아이, 나만이 아닌 우리를 생각할 줄 아는 아이, 언제나 행복한 아이를 길러내는 것은 오직 부모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일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부모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 보자.

“엄마, 나무 그려주세요”, “엄마, 꽃 그려주세요”

아이들이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면서 부모를 졸라대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단순한 형태로 나무나 꽃을 그려주곤 한다. 그러나 아이의 스케치북에 손대지 마라. 아이들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사물을 빨아들인다. 그런 아이에게 엄마가 알고 있는 단순화된 나무를 그려주면 아이들은 스스로 보고 느낀 나무가 아니라 엄마의 나무만을 알게 된다. 아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대신 아이가 그리길 원하는 사물을 직접 보고 느끼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유럽의 부모들은 작은 일에서도 아이의 상상력과 표현력을 길러주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이 책은 8년간 프랑스, 영국 등에서 아이들을 길러온 저자가 현지에서 느낀 유럽의 교육환경을 소개하고 있다. 교과서 없이 공부를 하고, 대본 없는 연극을 스스로 만들어 공연하면서 아이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프랑스의 프레네 학교,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영국의 브린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특별전시를 비중 있게 마련하는 유럽의 전시회, 예술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와 재미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영국의 '칠드런 아트 데이' 등. 저자는 이러한 유럽의 교육환경을 마냥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가 음악을 하고 싶다고 하면 피아노 학원을 보내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면 미술학원을 보내고, 운동을 시키기 위해 태권도 학원을 보낸다. 유럽 아이들이 학교와 미술관, 박물관에서 넓은 세상을 배울 동안 학원이라는 작은 세상 안에 갇혀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안타깝다.

자녀 교육의 99%는 감성이 좌우한다고 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 엄마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유럽의 감성 교육법을 배워 보자.

주제관련도서 ▶ 행복한 아이를 만드는 자녀교육 지침서

1. 내 아이를 위한 사랑표현 학교 / 김성은, 팝콘북스, 2007.
2. 이기는 아이를 만드는 긍정육아의 비결 / 게일 레이클린, 캐롤라인 윙클러, 휴먼하우스, 2007.

주제관련도서 ▶ 행복한 아이 만들기

1. 생각수업 / 아미모토 미에, 열음사, 2008.
2. 변산공동체학교 :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윤구병, 김마선, 보리, 2008.
3. 숲에서 크는 아이들 / 이마이즈미 미네코, 파란자전거, 2007.



외동아이 잘 키우는 55가지 지혜

다고 아키라 | 문학수첩리플북 | 2008 | 156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좋은 부모 되기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여주분관 전미향

얼마 전, 한 이용자의 “이 책 내용 어때요?”라는 질문에 “사실 저도 자세 히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하고 개미 같은 목소리로 대답하면서 동시 에 머릿속으로 ‘책을 자세히 읽어볼걸…….’ 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다시 이 책을 펼치게 되었다. 자의적 선택에 의해 읽게 된 책은 아니었으 나, 요즘 부쩍 떼쓰기가 많아진 나의 딸 육아문제에 딱 맞는 책이었다. 제목부터 책의 내용을 너무나 솔직하게 표현한 이 책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한 번쯤은 고민했을 내용, 특히 외동아이를 키우는 부모 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함께 어울리는 외동아이를 키우기, 독 부러지는 외동아이를 키우기, 의 욕 넘치는 외동아이를 키우기, 혼자서도 잘하는 외동아이를 키우기라는 네 개의 주제로 되어 있으며, 첫 장의 시작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만화로, 마지막 부분은 저자가 생각하는 팁으로 구성되 어 각 장의 내용을 재미있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점은 아이에 대한 애정을 부모가 분명하게, 끊임없이 말해 주는 것이다.

육아 관련 책들이 그렇듯 책의 모든 내용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딱 들어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육아에 대한 기본적 생각과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반성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듯하다. 나 또한 직장 맘으로서 평소 딸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딸 에게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건 너야”라고 말하며 꼭 안아줘야겠다.

현재 외동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둘째, 셋째 아이를 계획했는지라도 첫아 이를 키우고 있는 초보 부모 그리고 직장 맘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책 읽는 엄마 책 먹는 아이

한복희 | 여성신문사 | 2008 | 266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독서교육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박혜영

아이가 책을 먹는다. 책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책에 양념을 뿌려 맛있게 먹었던 책 먹는 여우처럼, 실제로 먹는 건 아니지만 책을 읽는 아이는 머 리와 마음으로 책 속의 양분을 먹고 자란다. 내 아이가 그렇게 자라나기 위해 엄마는 책을 읽어야 한다. 그것이 앞서야 한다.

독서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복희 씨가 그동안의 독서지도 경험을 현 장감 있게 공개했다. 직접 독서지도를 하며 겪었던 일화나 아이들과 나 누었던 대화들,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들에 독서지도 15년차의 경험이 오롯이 묻어나 있다. 최고의 직업이라는 ‘어머니’는 그 이름의 무게와 같 이 책임감이 뒤따르는 다양한 역할을 필요로 한다. 그중에 하나인 내 아 이가 책과 친해지도록 하는 독서교육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내 아이가 읽는 책이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오페라의 유령을 괴 기 소설이라고 못 읽게 하는 엄마가 과연 제대로 된 독서교육의 의미를 알고 자녀를 지도할 수 있을까? 모든 엄마가 전문가가 되어 독서지도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 아이가 보는 책이 무슨 책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엄마가 먼저, 그리고 아이와 함께 읽어보아야 한다. 엄마의 독서생활이 아이의 독서습관 형성에 가장 바탕이 되는 교육이 될 수 있 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책 속 중간중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실제로 엄 마들에게 독서교육에 대해 질문받았던 내용을 싣고 있어 같은 고민을 갖 고 있는 엄마라면 참고해볼 만하다.

책을 덮는 순간, 다시 책 표지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책 먹는 아이’ 의 글자가 더 크고 표지에도 아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책을 먹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 그림 속 어딘가에 책 읽는 엄마의 모습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다.

주제관련도서 ▶ 자녀교육의 노하우

1.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 / 노경선, 예담, 2007.
2. 부모와 아이 사이 / 하임 G 기너트, 양철북, 2003.
3. EBS 60분 부모 / 김미라, 경향미디어, 2007.

주제관련도서 ▶ 우리 아이 독서지도

1. 아이의 두뇌를 깨우는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 / 짐 트렐리즈, 북라인, 2007.
2. 독서 습관 100억 원의 상속 / 김순례, 최익현, 파인애플, 2007.
3. 내 아이가 책을 읽는다 / 박영숙, 알마, 2006.



생각수업

아자모토 미에 | 열음사 | 2008 | 279p.
이용대상 : 교사 · 학부모
주제 : 참교육 · 교수법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윤영희



21일 공부모드

정철희 | 밀리언하우스 | 2008 | 239p.
이용대상 : 청소년
주제 : 공부습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함은경

코끼리도 날 수 있다는 오타 선생님의 생각수업은 대체 어떤 것일까? 궁금중에 읽게 된 책 속에서 진정한 참교육의 모습과 참된 교육자의 삶을 만나며 하늘을 나는 행복한 코끼리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생각수업을 이끄는 오타 선생님은 중학교의 미술 교사로 자녀 둘을 키우던 평범한 주부에서 늦은 나이에 교단에 섰다.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결혼생활을 벗어나 온갖 노력 끝에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았을 때의 기쁨은 “모든 아이에게 인정받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간절한 바람이자 강한 신념이 되었다.

오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호감과 의욕, 위엄을 동시에 느끼도록 하기 위해 외모, 말투, 자세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수업 준비를 시작한다. 미술실은 벽면 가득 아이들의 그림을 걸어두고 수시로 바꾸어 걸며, 싱그러운 화초들을 부지런히 가꾸어 아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고 풍요롭게 한다. 결과보다는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놓치지 않고 인정하며 칭찬거리를 꼬집어내 학급 전원을 칭찬한다. 명령보다는 판단력을 키워 책임감을 갖게 하고 자신의 눈으로 자유롭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탐구심과 창의성을 키워준다. 오타 선생님의 미술 수업은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자료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이다. 작품을 만들기 위해 먼저 철저한 조사연구를 하고 자유롭게 주제를 정한 뒤, 스스로 자료를 연구하여 스케치북에 글로 정리한 후, 그림을 완성하고 소감까지 작성한다. 완성된 작품은 발표의 장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스스로 해냈다는 진정한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자부심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아이들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했던 오타 선생님! 치열한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도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 땅의 오타 선생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21일 공부모드』라는 참 가벼운 제목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집어든 건, 이 책이 예일대학, 옥스퍼드대학 등에서 검증된 학습능력 프로그램으로 각종 방송사에서 소개되었다는 홍보 문구 때문이었다. 21일이면 뭔가 이뤄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알팍한 기대감도 물론 한몫했다.

책의 주된 내용은 공부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학습량을, 일정한 장소에서’ 이것을 21일 동안 실천하면 습관화된다고 한다. 그런데 왜 하필 21일일까? 21일은 생각이 대뇌피질에서 뇌간까지 내려가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생각이 뇌간까지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습관적으로 행하게 된다고 한다. 습관화되기까지의 21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기가 중요하다.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의식 없이는 공부를 습관화하기도, 또 이것을 지속하기도 어렵다. 학습 동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은데 이때 부모의 코칭이 매우 중요하다. 자녀와 대화가 어려운 부모를 위해 저자는 맥킨지 그룹이 즐겨 사용하는 ‘GROW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Goal-목표), 현재상황은 어떠한지(Reality-현실),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Option-대안), 무엇을 실행할 것인지(Will-실행)의 단계를 활용하여 대화해보도록 하자.

저자는 동기를 찾은 아이들이 보다 단기간 내에 학습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학습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시간 관리법, 집중력 향상 전략, 효율적인 공부기술, 두뇌 사용 전략, 최적의 공부환경 만들기 그 것이다. 특히 두뇌 사용 전략에 소개된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과 최적의 공부환경을 만들기 위해 휴대폰 중독, 게임 중독 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내용이 매우 공감되었다.

서울대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공부를 잘하게 된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58%가 ‘부모의 신뢰’를 꼽았다고 한다. 아이가 무슨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부모의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저자의 말을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하겠다.

주제관련도서 ▶ 참교육으로 이끄는 행복한 수업

1. 에스퀴스 선생님의 위대한 수업 / 레이프 에스퀴스, 추수발, 2008.
2. 내가 무슨 선생 노릇을 했다고 / 이오덕, 삼인, 2006.
3.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 사토 마나부, 에듀케어, 2006.

주제관련도서 ▶ 공부하는 습관

1. 1등급 공부습관 / 최인호, 21세기북스, 2008.
2. 습관 : 일등과 꼴찌는 습관이 다르다 / 박수현, 글로세움, 2007.
3. 계획 : 대한민국 상위 1%의 공부습관 / 고봉익, 박수현, 북섬, 2006.



조선 블로그

문명식, 이현 | 생각과 느낌 | 2008 | 251p.
이용대상: 청소년
주제: 조선시대 이야기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유희연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 까치글방 | 2008 | 267p.
이용대상: 일반
주제: 정치사상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박상미

‘조선시대 사람들이 블로그를 할 수 있었다면 그 내용은 어땠을까?’ 작가의 기발한 상상력으로 책이 탄생했다. 표지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노트북을 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준다. 지금 이 세상은 인터넷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인터넷에 길들여져 있다. 매일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조선시대의 블로그』는 ‘조선의 역사적 사실’과 21세기의 ‘블로그’라는 형식이 만나 새로운 재미를 선사해 준다. 책 속의 인물들은 본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태종 이방원은 ‘하여가’, 세종은 ‘백성사랑’, 의병은 ‘홍의장군’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글쓰이의 개성을 잘 살려주고 있다. 책 속에는 역사적 인물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가는 양반, 농민, 상인의 블로그와 실학과 풍속화에 관한 카페까지 있어 조선 초기 인물과 후기의 문화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특히 블로그 속의 각종 사진과 그림, 만화는 그 이해를 도와주고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것은 각주를 달아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통의 역사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블로그에서는 글쓰이가 역사 속의 인물로 설정되어 있어 사건에 대한 인물의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을 접할 수 있다. 게다가 블로그 내용에 대한 댓글도 글쓰이의 주변 인물들이 작성하여 더 실감 난다. 또한 내용과 댓글의 문체가 현재의 블로그 댓글 같은 모습이라서 마치 실제 블로그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고 책을 읽다가 웃음을 터트리게 한다. 블로그라는 새로운 그릇 속에 역사라는 재료를 현대적 감각으로 요리하여 신선한 맛을 내는 이 책은 인터넷 세대의 독자들에게 재미와 함께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정치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요즘같이 전 세계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꼽을 수도 있고, 전통적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그래도 ‘도덕성’을 최고의 자질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란 시대적 여건이나 사회적 정서 등에 따라 조금씩 그 견해가 변해왔기 때문이다. 서양정치사에서 플라톤이 정치지도자에게 도덕적이고 지적인 면을 강조하는 데 이어 훗날 르네상스시대에 활약한 정치가 마키아벨리는 근대적 시각에서 ‘정치적’인 자질을 강조했다. 그의 이러한 정치사상은 기존과 비교되는 근대정치학으로의 시작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의 근대 현실주의 정치사상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이 책은 정치학 분야의 교과서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온 고전이라 할 수 있다. 『군주론』에서 묘사되는 정치적 지도자는 ‘목적지상주의’ 내지는 권모술수에 능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만 세상은 이상이 아닌 현실이고 그러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전략을 택해야 할 필요성을 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현대사회 리더나 참모의 적절한 역할모델을 찾을 수 있다. 결국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적이고 이익지향적인 행동원리, 정치적인 독자성과 자율성, 외양을 중시하는 사상에 기반을 둔 시각은 정치지도자뿐 아니라 조직의 관리자로 혹은 모임의 리더로 발돋움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취해야 할 자질을 제시하고 더불어 훌륭한 리더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군주론』을 접하면서 우리에게도 정책에 대한 이해와 국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힘든 상황에서도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리더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주제관련도서 ▶ 조선의 역사를 알려주는 도서

1. 친절한 조선사 / 최형국, 미루나무, 2007.
2. 조선을 뒤흔든 최대 역모 사건 / 신정일, 다산초당, 2007.
3. 이야기 조선왕조사 / 이근호, 청아출판사, 2005.

주제관련도서 ▶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치사상

1. 정치사상사 / 박윤형, 한국학술정보, 2008.
2. 통치론 / 존 로크, 타임기획, 2006.
3. 조선전기 유교 정치사상 연구 / 정재훈, 태학사, 2005.

인생카페

인생카페



존 스트레테키 | 들출판사 | 2008 | 206p.
이용대상 : 청소년
주제 : 인생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미숙



디케의 눈

금태식 | 공리 | 2008 | 265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법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 정은성

당신은 왜 이곳에 있습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길을 잃어 우연히 들르게 된 카페에서 주인공 존은 살면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을 접하고 당황한다.

이 책의 주된 메시지는 위의 세 물음 속에 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고 진정 원하는 삶을 위해 살며,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이 세 가지 질문은 독자에게 자신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준다.

이 책은 위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깨우쳐서 마음에 새길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낼 때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기에 자신만의 해답을 내릴 수 있도록 방향만을 제시한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아가고, 자신의 꿈에 가까이 다가가길 권하며,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책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이다. 책 속의 '녹색 바다 거북'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밀려오는 파도'에 모든 에너지를 소모한 나머지, 정작 자신의 존재 목적을 충족시켜 주는 '밀려가는 파도'에서 힘껏 나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반성하게 한다. 이 책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 페이지 중간마다 상상력을 자아내는 그림들을 가만가만 들여다보며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인생을 하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자신은 그 인생의 훌륭한 작가가 된다. 이 책을 통해 인생이라는 이야기에 멋진 글을 남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책 표지에서 보듯이 법의 여신 디케(Dike)는 한 손에는 저울을, 보이지 않는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눈은 두건으로 가리고 있다. 디케가 들고 있는 저울과 칼은 오랫동안 법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왔다. 하지만 두건으로 가려진 눈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저 부당한 압력이나 이해관계에 눈 돌리지 않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의미로 얘기되어 왔으며,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은이는 디케가 눈을 가린 이유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법이 적용되는 현장에서 보면 오히려 법을 통해서 진실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한다. 따라서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진실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틀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법은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위험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어떤 것이라는 의미로 바라보고 있다.

본문에서는 국내외에 일어난 중요한 법적 사건과 자신이 검사와 변호사로 일하면서 직접 겪은 경험들을 중심으로 쉬우면서도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열여덟 가지 사건과 재판을 다루고 있다.

12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미해결 사건으로 남은 어느 소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LA 우범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두순자 여인의 흑인 소녀 총격 사건, 50만 달러짜리 페라리를 몰고 나이트클럽을 가던 패리스 힐튼의 교통사고 사건, 커피를 쏟고 24억 원을 번 할머니 이야기 등 법정과 재판이 나오는 영화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읽는 내내 흥미진진했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딱딱하고 복잡하고 지루하며 어렵게만 보이는 법이 우리와 가까이 있음을 실감하는 것은 물론 법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씩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제관련도서 ▶ 나를 찾고 행복을 찾는 이야기

1. 인간과 철학 / 임준기, 양서원, 2008.
2. 그래도 계속 가라 / 조셉 M. 마셜, 조화로운삶, 2008.
3. 마인드 / 존 R 설, 까치글방, 2007.

주제관련도서 ▶ 법으로 세상읽기

1. 교양으로 읽는 법 이야기 / 김옥, 인물과사상사, 2007.
2. 정의의 여신 광장으로 나오다 / 강정혜, 프로네시스, 2006.
3. 미국 로스쿨 로펌에 도전하라 / 손창호, 렉스미디어, 2007.



책읽기의 달인 호모 부커스

이권우 | 그린비 | 2008 | 223p.
이용대상: 청소년
주제: 책읽기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강수연

직업이 사서라는, 그래서 책을 대하고 책을 이해하는 능력이 남들보다는 좀 달라야 한다는 부담감을 차치한 채, 내가 갖춘 독서능력의 현주소를 생각해 보았다. 나 역시 한국 입시교육의 사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체 제도와 시류에 맞는 책읽기를 강요받아 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나의 책읽기의 목적과 방법은 뼈도 살도 없는 조악한 조형물 같은 것이었다.

이 책을 통해서 책읽기의 목적은 어떠한가 하며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 구심점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이 책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모두 수용한다거나 절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책 읽기의 목적과 방법은 시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이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정보 추출을 위해 마치 새롭게 익혀야 할 독서 기법들이 있는 양 우리 사회가 호들갑을 떠는 가운데에서도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너무 간단한 진리에 허를 찔린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식습득과 인격함양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책을 읽어야 한다. 살아남기 위한 도구로 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수용할 때 우리 스스로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자율 기제로써 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누구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그 현장에 책이 있는 것이다.

책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향하는지,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치우침은 없는지 등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중심에 설 수 있게 된다. 그러기에 사회적으로 규정된 다독과 속독에 내몰리지 말기를 필자는 강조하고 있다. 나에게 맞는 나만의 양서 목록이면 충분하며, 곱씹고 되씹으면서 나 자신을 책 속에 흠뻑 내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책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주제관련도서▶ 책읽기는 인생의 즐거운 도전

1. 어느 게이밍뱅이의 책읽기 / 이권우,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1.
2. 나는 읽는 대로 만들어진다 / 이화석, 고즈원, 2008.
3. 조선 지식인의 독서노트 / 한정주, 포럼, 2008.



우체국 이야기

이종탁 | 황소자리 | 2008 | 262p.
이용대상: 일반
주제: 우체국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 김성옥

'편지와 우체국의 역사에서 세계 우편의 현주소까지'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은, 서평을 쓰기 위해서 무슨 책을 소개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며 신간도서들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차에 눈에 띄어 집어들게 된 책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손으로 적은 편지를 우체통을 통해서 보내는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던 우체국이라는 세계는 여전히 역동적으로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을 끊임없이 바뀌어나가는 곳이라는 것이다. 미처 내가 알지 못했을 뿐, 그곳은 추억과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 책은 지은이가 2006년 5월부터 경향신문사가 발행하는 주간지 '뉴스메이커'를 통해 '이종탁의 우정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글들을 추리고 다듬어 단행본으로 발행한 것이며, 현재도 연재 중인 고정 칼럼이다. 이 책에는 그중 67개의 짧은 산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정사업이나 우편에 얽힌 갖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그와 관련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우정(郵政)에 관한 상식들도 언급하고 있다. 우표에 관한 이야기, 세계 우체국의 현재, 명사와 얽힌 우체국 이야기, 우정사업의 미래와 우편의 참의미에 대한 생각들까지 우체국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깃거리로 재미와 교양을 두루 만족시켜 주는 책이다.

늘 어느 곳이나 있는 것이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체국과 관련해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에 이 '우체국 이야기'를 읽어보기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다. 아마 우체국을 주제로 이렇게 다양한 에피소드와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은 여태껏 보지 못했던 것 같다.

다가오는 성탄절, 가족과 친구들 혹은 평소에 잊고 지냈던 고마운 사람들에게 직접 만든 성탄절 카드에 크리스마스 실(seal)을 붙여 띄워 보는 것은 어떨까(이 책을 읽으면 왜 크리스마스실을 사야하는지 알 수 있다).

주제관련도서▶ 우체국에 대해 알아보기

1. 나는 우체국에 탐닉한다 / 모리이 유카, 갤리온, 2008.
2. The History of the Post Office / Barbara Somervill, The Childs World Inc, 2006.



나는 읽는 대로 만들어진다

이희석 | 고즈윈 | 2008 | 304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독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김미진



당신이 답이다

정철화, 이정선 | 무한 | 2008 | 304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성공치세술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김윤희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실 바쁜 현대생활에서 책 읽는 시간을 낸다는 것은 큰 맘 먹지 않고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꾸준히 독서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읽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책 속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음을…….

'Leader'를 꿈꾸는 'Reader'인 이 책의 저자 이희석은 자신이 독서를 통하여 꿈을 꾸기 시작해 더 나은 주체로 성장한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과도 이러한 유익한 경험을 나누고자 이 책을 쓴 것 같다.

독서와는 도무지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초보자들에게 책을 읽는다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얼마나 유익한 도움을 주는가에 대해 구구절절 외치고 있으며 어떻게 흥미를 갖고 접근할지, 어떤 책을 선정해야 할지를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미 독서의 효율성을 깨달은 중급 Reader에게는 본인의 독서 습관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후반부에는 그들을 위한 독서 접근법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다. 저자는 처음에는 흥미 위주로 목적에 맞게 읽되, 중급 이상이 되면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게 그리고 전문분야는 깊게 책을 읽으라고 조언한다.

나는 이제 조금을 간신히 벗어난 Reader지만, 『나는 읽는 대로 만들어진다』는 책 제목에 깊이 공감한다. 저자는 이십대를 운 좋게도 독서의 한 가운데 있었다고 말한다. 나도 지금부터라도 독서 속에서 살아가고 싶다. 나와 함께 이 책을 시작으로 책읽기를 시작 - 또는 다시 시작 - 하여 자신의 영혼을 진정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아 보는 것은 어떨까?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던 어느 날, 고단함에 지친 나에게 겨울날 새벽 공기에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상쾌함을 주는 책을 읽었다. 알맞은 책 크기에 맞게 적당히 배치된 글은 부담스럽지 않고 가볍게 책장을 넘길 수 있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변화하려는 자인가, 현재에 안주하고자 하는 자인가.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현재에 머물기만을 바라면서 아래의 삶으로 추락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다. 성공으로 가는 열쇠도 실패로 가는 열쇠도 모두 자신 안에 있다고 말한다.

당신의 몸 안에 있는 초강력 잠재의식을 깨워라. 자신이 마음속으로 그리는 생각이 곧 자신의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는 법칙이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원하는 곳으로 힘껏 쏟아 부어라. 생각의 힘은 위대하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삶이 단시간에 변화하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현재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향한 비전과 사명을 왜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지침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안주하고자 하는 당신의 삶에 당신도 변화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현실에 안주하고자 했는지 뒤돌아보게 될 것이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당신이 답이다. 당신 안에 답이 있는 것이다.

주제관련도서 ▶ 내 영혼을 살피우는 책읽기

1. 책 읽기의 달인 호모 부커스 / 이권우, 그린비, 2008.
2. 책력 / 안상현, 북포커스, 2007.
3.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 / 모티머 J. 애들러, 멘토, 2000.

주제관련도서 ▶ 내 안의 나를 깨워 보자

1. 상쾌한 아침 당신의 잠재능력을 깨워라 / 니콜레온 힐, 리더스, 2003.
2. 원하라 허락하라 그리고 집중하라 / 제리&에스터 히스, 도솔, 2001.
3. 1,250℃ 최고의 나를 만나라 / 김범진, 중앙북스, 2007.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 부키 | 2007 | 383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경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이정주

책 제목만으로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사다리 걷어차기』 등을 통해 서구 경제학의 모순을 비판해 온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의 경제교양서이다. 경제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소재 등을 통해 현재의 경제 문제를 풀어 써, 읽어가다 동안 단편적인 경제상식을 명료하게 정리해주어 큰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우리나라는 IMF라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공기업 민영화, 공무원 감축 등 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해야 했고 가격 자유화, 자유무역 등 경제 자유화 정책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행해야만 했다. 그 결과 중산층의 몰락과 더불어 수많은 노숙자를 양산하였으며, 그것은 아직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사실은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보호무역정책 없이 자유무역을 했을 때 누구에게 이롭거나 해가 되는지, 경제를 개방하면 정말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지, 공기업 민영화가 실물경제에 득이 되는지를 말 없이 웅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마치 브라질 국가대표팀과 열한 살 먹은 그의 딸 유나의 친구들로 짜인 팀이 축구경기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다양한 사례와 쉬운 예를 들어가며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우리에게 세계화라는 이론으로 무장하고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 자유무역 이론이 과연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지, 무역강대국에만 이득을 주는 방패인지 판단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신문의 경제면을 애써 외면하지 않아도 될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주제관련도서 ▶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1. 88만원 세대 / 우석훈 · 박권일 공저, 레디앙, 2007.
2.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 / 테리 반햄, 갈리온, 2008.
3. 금리의 경제학 / 홍완표, 신론사, 2008.



여자의 뇌, 여자의 발견

루안 브리쥬던 | 리더스북 | 2007 | 280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뇌과학 · 남녀심리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 이승희

남자와 여자는 왜 다른 걸까?

사고방식, 행동, 언어, 감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다를 수밖에 없는지, 남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는 유전자 코드가 99% 이상 같으며, 나머지 1%에 의해 남녀의 차이가 결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남녀의 차이는 뇌 구조와 성호르몬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의 근본적인 차이와 호르몬 변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어쩌면 어렵고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주제일 수도 있지만 이 책에서는 저자의 10여 년간의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와 상담자들의 예를 들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담고 있다.

2006년에 미국에서 '워싱턴포스트 베스트 논픽션'에 선정되기도 한 『여자의 뇌, 여자의 발견』은 저자가 여자의 입장에서 여자의 뇌를 주제로 여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쓴 책이다. 사춘기를 겪는 10대 소녀에서 연애와 사랑을 하는 젊은 여자로, 다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에서 완경(完經) 이후의 나이 든 여자로 이어지는 모든 시기에 걸쳐 여자가 겪는 심리적 변화를 뇌와 호르몬의 변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왜 더 높은지, 엄마의 모성애가 강한 이유와 여자들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여자인 자기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되돌아보며 자신을 제대로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남자들에게겐 남편, 아버지, 아들로써 여자의 마음과 생물학적 행태를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해 주는 책이다.

주제관련도서 ▶ 남녀 차이의 비밀

1. 그 남자의 뇌, 그 여자의 뇌 / 사이먼 배런코언, 바다출판사, 2007.
2. 심리학이 연애를 말하다 / 이철우, 북로드, 2008.
3. 유혹의 기술 / 로버트 그랜, 이마고, 2008.



우주에서, 이소연입니다

김호진 | 샘터 | 2008 | 278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우주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서부남



천재지변 탐사학교

자연탐사학교 | 청어람미디어 | 2008 | 407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자연재해 · 지구환경 변화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김지은

어릴 적, 사생대회에서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우주정거장을 그렸던 일, TV에서 몸이 공중에 뜬 채로 반갑게 손을 흔드는 러시아 우주인의 모습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했던 일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우주 공간에서의 체험은 상상속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곳을 직접 체험했다니, 우주가 점점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우주에서, 이소연입니다』는 대한민국의 꿈을 싣고 우주로 날아오른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에 대한 기록을 엮은 책이다. 우주인 선발 과정, 가까운 우주센터의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 밤낮없이 진행된 훈련과정,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발사기지에서의 우주선 발사과정, 국제우주정거장의 도킹 장면 등 한국 최초의 우주인 배출 과정을 생동감 있게 담았다. 거기에 우주에 관한 지식과 우주인 이소연에 대한 이야기를 적절히 혼합하여, 독자들이 책을 소설처럼 편히 읽을 수 있게 구성하였다. 무중력 비행기 안에서 몇 차례나 훈련을 받았지만 실제로 체험해본 우주의 무중력은 그 느낌부터가 다르다고 한다. 우주에서는 칼슘이 빠지고 근력이 약해진다고 하며, 근력 강화를 위해 운동하는 사진 속 그녀의 표정이 매우 행복해 보인다.

그녀가 우주에서 둥근 지구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내가 우주에 왔구나' 하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곳에서 본 지구가 정말 가장 아름답게 보였다는 그녀의 말. 우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거침없이 밀려든다. 우리나라가 우주공간에서 우주정거장을 짓고 행성탐사를 떠나는 일, 이제 그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천재지변(天災地變)의 사전적 정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사람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현상을 천재지변, 자연재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천재지변에도 과학적 원리가 들어 있음을 밝히면서, 그 속에 들어 있는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여 피해를 줄여보자는 의도로 출판되었다.

『천재지변 탐사학교』는 대가-지각-지구환경-우주변동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태풍/번개/토네이도, 2장은 지진/화산/산사태, 3장은 지구 온난화/대기오염/물부족, 4장은 천체충돌/지구자기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각 chapter마다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함께 실제 발생했던 자연재해를 예로 보여주며 대비책까지 제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쓰나미, 허리케인 카트리나, 태풍 매미, 하와이의 용암분출, 해성·운석의 충돌 등을 과학적 관점에서 접할 수도 있다.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의 대다수는 사람이 원인이다. 인간의 소비행위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대기를 오염시키며, 물 부족을 겪게 한다. 그리고 산사태와 태풍, 토네이도의 위력을 강하게 만든다. 천재지변이 인재지변(人災地變)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대비와 예방이 꼭 필요하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만든다는 나비효과처럼 개인의 무관심과 안일한 태도는 우리 지구를 병들게 하고 죽어가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주제관련도서 ▶ 우주 이야기

1. 문더스트 / 앤드루 스미스, 사이언스북스, 2008.
2. 우주로부터의 귀환 / 다치바나 다카시, 청어람미디어, 2002.
3. 우주인 이소연 그 끝나지 않은 도전 / 박희범, 전자신문사, 2008.

주제관련도서 ▶ 지구는 우리의 미래! 지구와 함께 살아가기

1. 뜨거운 지구에서 살아남는 유쾌한 생활습관 / 데이비드 드 로스차일드, 추수밭, 2008.
2. 인간 없는 세상 / 앨런 와이즈먼, 랜덤하우스, 2008.
3. 기후 커넥션 / 로이 W. 스펜서, 비아북, 2008.



영화 속의 바이오 테크놀로지

박태현 | 생각의나무 | 2008 | 303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생명과학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강수연

우리가 흔히 즐겨보는 공상과학 영화들은 그 스펙터클한 제작과 빠른 이야기 전개로 관람자로 하여금 생각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그러기에 그 속에 숨은 과학적 논리를 찾고 현실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수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재미있게 혹은 무척 황당하게 느끼며 보았던 영화들을 지면으로 대하면서 그때의 기억과 단편적인 장면들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이 책에는 사건의 발단이나 실마리가 되는 과학적 논리들이 실제로는 어떤 단계나 수준에 있으며 그 영화가 지닌 과학적인 비약과 허점이 무엇 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두었다. 또한 잘못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으로 인해 한두 번쯤 겪었을 생활 속 에피소드들이 시원하게 설명되어 있다. 슈퍼히어로, 스파이더 맨, 엑스맨 등과 이외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들을 토대로 그 속에 등장하는 과학적인 소재를 재미있고 친숙한 설명으로 풀이한 이 책은 마지막 페이지까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어렵게만 느껴지고 생소한, 아주 먼일처럼 느껴졌던 생명공학기술이 현재는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이것이 많은 영화의 새로운 영감과 모티브가 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주목할 순간이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작가가 중간마다 복선을 깔아놓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현재 기술로는 영화 속 그러한 상황발생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의 기술만 해결된다면 불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이다. 과학의 발전이 가져다준 더욱 편리해진 생활을 넘어, 과학과 인간이 하나로 결합되는 미래를 꿈꾸는 우리는 영화에서처럼 해피엔딩이나 유보된 결말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 나날이 발전하는 생명공학기술은 인간의 행복과 장생을 위해 반갑고 짜릿한 미래를 제공해주겠지만, 그러한 기술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윤리 의식도 함께 성장해야 문제는 우리에게 큰 숙제로 남을 것이다.

주제관련도서 ▶ 생명과학 이야기

1. 생활 속의 생명 과학 / 김재근, 라이프사이언스, 2005.
2. 생명은 끝이 없는 길을 간다 / 데이비드 스텝키, 모티브 북, 2008.
3. 살인 단백질 이야기 / DT맥스, 김영사, 2008.



페스티벌 제너레이션

김지숙 외 | 브이북 | 2008 | 248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페스티벌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 정은성

처음 이 책을 봤을 땐, 책 사이즈도 일반 책보다 크고 책 속에 사진도 많아서 잡지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더 쉽게 눈에 띄었고, 책 표지 속 젊은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니 나 또한 직접 현장에 있는 듯 축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흥분된 마음으로 책을 펼치게 되었다.

이 책은 관심분야가 같고 용기와 열정으로 가득 찬 개성이 강한 많은 사람들이 '페스티벌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국의 페스티벌을 직접 즐기면서 느낀 원정기를 다룬 책이다. 저자는 가슴 속에 품기에는 너무 벅찬 음악과 공연에 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저장되길 거부하여 이 책을 쓰게 되었으며, 자신에 대해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자기로의 여행이라는 것을 담고 싶었다고 말한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세계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함께 춤추고 소리 지르고 마시고 꿈꾸는 14개의 뮤직 페스티벌 스토리를 다룬 리뷰가 있고, 페스티벌 패션, 페스티벌 식단 및 페스티벌 메뉴, 페스티벌 고어가 가져야 할 아홉 가지 자세 그리고 페스티벌에서 만난 연인,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 페스티벌이 우리에게 나눠준 것들, 아는 만큼 보이는 페스티벌의 재미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리포트, 그 외 페스티벌 제너레이션의 기록에 관한 아젠다, 인터뷰, 프롤로그,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14개의 뮤직 페스티벌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9월 중순 무렵에 열리는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과 매년 7월 말경에 열리는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을 소개하고 있다.

늘 나이 탓, 시간 탓만 하는 소심한 30대 아줌마인 나는 딸아이를 재워놓고 신랑과 마주앉아 지난날 열정적이었던 때를 회상하며, 언젠가 나에게도 또다시 페스티벌의 열기와 젊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그날을 대비해 장화라도 미리 장만해 둘까?

주제관련도서 ▶ 세계 여러 나라의 축제 이야기

1. 한국의 지역축제 / 김홍우, 지성의샘, 2006.
2. 축제 세상의 빛을 담다 / 김규원, 시공아트, 2006.
3. 유럽음악 축제 순례기 / 박종호, 한길아트, 2005.



이 영화를 보라

고미숙 | 그린비 | 2008 | 263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영화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여주분관 **아아란**

이 책은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으로 잘 알려진 인문학자 고미숙의 영화 이야기이다. 영화를 즐겨 보지 않는, 그래서 그냥 재미있고 사람들이 많이 본 영화만 사람들에게 물어서 본다는 그녀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연구소 영상팀이 만드는 영화 모티브를 정하는 발칙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책의 내용도 그러하다. 우리가 어린 시절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했던 철학적 이야기를 가지고, 재미있고 감칠맛 나는 이야기로 풀어나간다.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하고 스스로 놀라게 된다. 정해진 것에 대한 일탈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카타르시스는 이 책에 빠져들게 하는 묘미다. 그녀는 책에서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보인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반미주의(저자는 아름다움에 반대한다는 의미라고 한다)와 까칠한 시각, 조금은 과하다 싶은 정도의 비유까지도 서슴지 않지만 그녀의 표현이 결코 저급하거나 억지 우기기 식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서편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판소리의 '한'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우리 역사의 모습이 아닌 근대에 와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려준다. 「라디오 스타」에서는 세상과의 단절로 인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록 가수를 통해 단절이라는 의미가 모든 세상과의 이별이 아니라, 또 다른 가족과의 연계를 위한 단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밀양」에서는 감히 신과 조폭을 같은 가족이라는 틀 안에 넣어서 버무려다 못해 동화시켜 버린다.

인문학이라는 철학적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왜 영화 속 장면과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근대적 시각의 깨달음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설적인 생각이 주는 새로움에 끝까지 책을 놓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세상에 대해 조금은 까칠한(?) 시각을 배우게 될 것이다.



무서운 그림 : 아름다운 영화의 섬뜩한 뒷이야기

나카노 교코 | 세미폴론 | 2008 | 235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미술감상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이은형**

그림은 때로는 눈을 즐겁게 하고, 때로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때로는 무한한 꿈을 꾸게 한다. 그러나 이 책은 다르다. 책 표지에 실린 그림이 사람의 마음을 오싹하게 한다. 입술을 꼭 다문 채 결눈질하는 여인. 두 눈 속엔 교활함과 사악함이 가득하다. 게다가 서로 주고받는 눈빛이 의미심장하다. 도대체 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무얼 하는 걸까?

이 책은 총 20여 편의 그림을 중심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펼쳐낸다. 때로는 그림 자체로 공포스러운, 때로는 아름다운 그림이지만 뒷이야기가 섬뜩한, 때로는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이 낯은 무서운 그림들이 있다.

참신한 구도, 탁월한 빛의 표현, 담대함과 섬세함이 어우러진 드가의 「에투알」, 무대 뒤쪽 검은 양복의 남자는 누구일까? 한 손에 장미를 들고 화려한 드레스에 미소 짓는 마리 앙투아네트, 우리가 흔히 보아온 그녀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책에선 또 하나의 마리 앙투아네트가 나온다. 뒤로 손이 묶인 채, 귀까지 드러난 아무렇게나 자른 짧은 머리, 더 이상 젊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그녀가 다비드의 손에서 굴욕적인 모습으로 최후의 초상화로 그려진다. 보는 것조차 거북한 조르조네의 「노파의 초상」과 마시스의 「추한 공작부인」, 왜 이 시대 사람들은 노인들을 이렇게 추악하게 표현했을까?

공포라는 것은 저항하기 어려운 흡인력이 있어서 인간은 안전한 장소에서 공포를 벗어나고 싶고 즐기고 싶은 욕구를 가진다고 한다. 오늘 밤, 어느 곳보다 안전한 내 방에서 여러 가지 공포를 담은 매혹적인 '무서운 그림'을 만나 보자. 무심코 지나치며 봤던 그림들이 짜릿한 전율로 온몸을 휘감을 것이다.

주제관련도서 ▶ 한국 영화 읽기

1. 환상의 지도 / 김소연, 울력, 2008.
2. 영화를 멈추다 / 김혜리, 한국영상자료원, 2008.
3. 인문씨, 영화양을 만나다 / 윤중목, 미다스북스, 2007.

주제관련도서 ▶ 흠쳐보는 재미가 쏠쏠한 이것저것 뒷이야기

1. 클래식 명곡 101 비하인드 스토리 / 아쿠타가와 아스시, 드림타임, 2004.
2. 스타벅스 100호점의 숨겨진 비밀 / 맹명관, 비전코리아, 2005.
3. 세계사 뒷이야기 / 박은봉, 실천문화사, 1994.



에피소드로 엮은 클래식 음악 100

모리모토 마유미 | 반디 | 2008 | 321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음악 · 클래식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윤정화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은 왜 운명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다다다 다안’이라고 시작하는 음에 대해 베토벤은 제자인 신들러에게 “이와 같이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했고, 이 에피소드가 원인이 되어 교향곡 제5번은 운명이 되었다고 한다. 이 에피소드를 읽고 ‘운명’을 들으니 정말 운명이 ‘다다다 다안’ 하고 갑자기 찾아올 것만 같다.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클래식 곡의 숨은 이야기, 작곡 배경 등을 작가는 크게 5개 부분으로 나누어 짜임새 있게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유명 작곡가의 대표곡 베스트 20’에서는 너무도 유명한 곡인 조르주 비제의 ‘카르멘’,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등의 작곡 배경과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 ‘음악시간에 자주 들은 명곡 베스트 20’에서는 학창시절 음악시간에 들어 보았던 곡들의 숨은 이야기 및 간단한 클래식 상식 등을 소개하고 있다.

레스토랑이나 카페, 병원, 학교 등 거리 어느 곳에서나 BGM으로 흔히 사용되는 파헬벨의 ‘카논’, CF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빈 필 신년 콘서트를 장식하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의 빈 왈츠, 행진곡 등 제목은 생소하지만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숨은 명곡들을 세 번째로 소개한다.

네 번째는 ‘유명 지휘자와 연주자가 가장 선호하는 베스트 20’을 소개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에서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악단원이 끝까지 연주하던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영화 ‘귀여운 여인’ 라스트신에서 울려 퍼지던 베르디의 아리아 등 영화와 드라마에 사용된 명곡들을 소개한다.



샤넬, 미술관에 가다

김홍기 | 미술문화 | 2008 | 336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미술사 · 복식사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이노경

『샤넬, 미술관에 가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표지와 제목으로 여러 책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끈 이 책은 이미 KBS ‘TV, 책을 말하다’와 여러 신문에 소개된 바 있는 유명한 책이다. 이 책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지은이 김홍기 씨가 미술 분야 전공자가 아닌 우리와 같은 일반인이라는 점이다. 밥 먹는 것보다 미술관 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저자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모아 무려 5년간에 걸쳐 저술했다고 한다.

“패션은 단지 옷에 대한 것이 아니다. 패션에는 우리의 생각, 삶의 방식, 일, 그 모든 것이 깃들어 있다.” -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

아마도 저자는 대부분의 그림에 모델과 옷, 소품, 상황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빅토리아 시대의 패션을 통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문화를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아닐까? 베네치아에서 가면이 유행했던 시대적 상황, 윈도우쇼핑의 기원, 파리를 패션 마케팅한 루이 14세의 통치전략 등 그동안 우리가 잘 모르고 지냈던 숨은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어 재미가 쏠쏠하다. 지금의 우리 백화점 시스템이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시스템 그대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이 책은 패션과 미술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점이 참신하면서도 각 주제별로 그림을 넣고 전문용어에는 일일이 설명을 달아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술 그리고 패션과 더욱 친해져 보자.

주제관련도서 ▶ 반갑다 클래식

1. 유쾌한 클래식 여행 1, 2 / 콘라트 바이키르헤르, 이룸, 2005.
2. 음악의 첫날밤 / 토머스 포리스트 켈리, 황금가지, 2005.
3. 금난새와 떠나는 클래식 여행 / 금난새, 생각의나무, 2006.

주제관련도서 ▶ 미술을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도서

1. 파워 오브 아트 / 사이먼 샤마, 아트북스, 2008.
2. 홀로 나귀 타고 미술숲을 거닐다 / 이원복, 이가서, 2008.
3. 예술, 인문학과 통하다 / 조광제 · 김시천, 웅진지식하우스, 2008.



그림 속에 노닐다

오주석 | 술 | 2008 | 214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한국회화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충희



사진가의 여행법

진동선 | 북스코프 | 2008 | 369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사진·여행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 이승희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이 책은 옛 그림 속에 있는 자연과 인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그림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서양인의 그림에는 인간의 신체가 자리 잡았지만, 우리 선인들은 산, 물, 바위, 나무 등 주위의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을 소재로 한 산수화를 즐겨 그렸다. 우리의 옛 그림 속 자연은 자연 그 자체인 동시에 사람이기도 하고, 위대한 자연을 함께 나누는 사람의 마음도 깃들여 있어 자연과 사람이 서로 어우러져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월오봉병'은 조선 궁궐의 용상 뒤에 치는 병풍이다. 왕은 반드시 이 병풍을 배경으로 앉고, 멀리 행차할 때나 죽어서 관 속에 누워서도 그 뒤에 놓인다. 김홍도의 '마상청앵도'와 같이 옛 그림 속 인물은 대중 그려진 듯해도 조선 사람이라는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말을 탄 선비와 하인의 생김새 역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걸작인 김홍도의 '송하맹호도'는 조선 범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범의 터럭 한 올 한 올을 붓질을 수천 번 반복해 그려낸 경이로운 예술품이다. 그러나 표구가 일본식으로 되어 있어 의젓하고 기결한 호랑이가 철창 속에 갇힌 듯 초라해 보인다고 말한다.

저자는 그동안 여러 강의와 책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우리 그림을 소개해 왔는데, 3년 전 지병으로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이제는 정겨운 저자의 글을 접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다. 그가 남겨준 이 책은 그래서 더욱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듯하다. 읽을수록 그동안 몰랐던 우리 그림에 대한 이해가 늘고, 그림을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는 이 책을 꼭 한번 만나보길 바란다.

누구나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이나 거리를 보면 카메라를 꺼내 들고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 진동선은 여행에서 찍는 풍경 사진이 아닌, 사진이 목적인 사진 여행을 하는 사람이다. 유럽 5개국 13개 도시, 4,250킬로미터를 사진을 전공하는 딸과 열흘간 함께 여행하며, 여행사진에서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등을 얘기하고 사진과 함께하며 살아온 작가로서의 자신의 삶과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려낸다.

프랑크푸르트를 시작으로 독일의 가장 아름다운 길 로맨틱 가도, 최초의 사진이 촬영된 장소 살롱쉬르손, 사진이 예술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공표한 사진의 도시 파리, 세계적인 예술 축제인 카셀 도큐멘타와 베니스 비엔날레뿐만 아니라 모나코, 니스, 칸 등 유럽의 여러 도시를 거쳐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오는 여정으로, 역사상 수많은 사진가들이 꿈꿨던 유럽의 그 거리와 풍경 사진을 20여 개의 여행기로 나누어 담고 있다. 그리고 각 기행의 마지막에는 사진과 함께 작가의 아름다운 글귀가 담긴 '포토 에스프리' 코너가 구성되어 있으며, 사진 여행에서 필요한 촬영 장비와 촬영법 등 사진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팁도 책의 마지막에 소개되어 있다.

'우리 여행의 꿈은 사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행하며 만나는 길 위에서 풍경, 사람, 거리 등을 담은 여행사진을 가장 의미 있는 사진으로 생각하는 저자는, 그동안 자신이 사진의 길을 걸어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번 여행을 통해 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 주고자 했던 것 같다.

주제관련도서 ▶ 저자의 또 다른 작품

1. 단원 김홍도 / 오주석, 술, 2006.
2. 오주석의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1, 2 / 오주석, 술, 2006.
3. 아인문의 강산무진도 / 오주석, 신구문화사, 2006.

주제관련도서 ▶ 사진과 함께 떠나는 여행

1. 그라시아스 라틴 / 밍 PARK, 애플북스, 2008.
2. 마치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 신미식, 골레마, 2008.
3. 마음이 머무는 풍경 / 최진연, 대산출판사, 2006.

어린이를 위한
경제 습관어린이를 위한
경제 습관

어린이동화연구회 | 꿈꾸는사람들

2008 | 208p.

이용대상 : 초등 4~5

주제 : 경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 정은교

요즈음 '부자 열풍'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서점에 가보면 무수히 많은 제테크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가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지 고민한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계획적인 경제 습관을 가졌다고 하던데, 어린 시절부터 '돈'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알고 계획적으로 '돈'을 소비하는 경제 습관을 익힌다면 아마도 이러한 고민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여기 '경제' 개념을 알게 하고 경제 습관을 익히는데 밑바탕이 되는 책이 있다.

『어린이를 위한 경제 습관』은 '저축왕'과 아이스크림 사수를 위한 '결사대'를 소재로 주인공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경제 원칙을 터득해 나가고 자연스럽게 경제 개념들을 알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독자들이 책을 읽으면서 경제 습관을 배울 수 있게 한다. 학교에서 뽐는다는 '저축왕'에 도전하기 위해 주인공 다솜이가 부모님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여 돈을 모으는 모습, 위기에 처한 아이스크림 가게를 위해 다솜이와 다솜이 친구 진우와 아람이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경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또한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사수하기 위해 '결사대'를 만들고, 가게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경제'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우정, 성실함, 용기 등을 짜임새 있게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흥미를 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으며, 아이들의 인성 발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돈'을 아껴 써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아이들이 올바른 경제 습관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주니어 생각의 탄생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 에코주니어

2008 | 225p.

이용대상 : 초등 전학년

주제 : 호기심 · 상식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김지영

로버트 루트번스타인과 미셸 루트번스타인의 『생각의 탄생』을 주니어용으로 만든 책이 바로 『주니어 생각의 탄생(김재현 역, 서영경 그림)』이다. 아이들 용으로 쓰인 책이지만 책의 구성이나 내용을 봤을 때 어른들이 보기에 충분한 지식과 상식이 많아 유용하다. 어른과 아이가 같이 보면서 아이가 모르는 내용을 어른이 설명해 주거나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만하다.

책의 구성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창의력 학습법을 관찰, 형상화, 추상화, 패턴 찾기, 패턴 만들기, 유추 등 여섯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실었다. 다음은 제1장 '생각의 탄생'으로 가는 출발역-관찰편'의 예이다.

- 〈하나라도 백 개인 사과〉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같은 사과인데 회사원이 보는 사과, 농부가 보는 사과, 화가가 느끼는 사과 등등 이렇듯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 것에 대해 책 속의 사과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해, 그러니까 백 명이 나를 보면, 나는 백 개의 사과가 되는 거야……" p14~15 중에서

이 책은 여섯 가지 각각의 학습법을 창의력 있는 발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그리고 그 예시를 적절하게 제시하고 중간마다 도움이 되는 유명한 위인들을 소개한다. 각 장에는 그 학습법을 연습할 수 있게 '상식을 뒤집는 생각놀이'란 코너가 있어 독자들이 직접 연습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아이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다양하고 적절한 사진과 그림이 많이 있고, 문제도 쉽게 쓰여 있어 이해하기 쉽다. 위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자칫 지루하고 딱딱해질 수 있으나 이 책은 많은 위인들을 짚막짚막한 이야기로 소개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주니어 생각의 탄생』으로 생각이 변화되고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자.

주제관련도서 ▶ 어린이를 위한 경제 습관 기르기

1. 부자수업 / 김현태, 청림아이, 2007.
2. 경제짱 디네로 / 디네로 프로젝트팀, 이콘, 2007.
3. 경제 : 부자가 되려면 꼭 알아야 할 6가지 방법 / 정수은, 아이앤북, 2007.

주제관련도서 ▶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책

1. 245가지 호기심 사전 / 라루스 백과사전 편집부, 청림아이, 2008.
2. 상식 팍팍 1분 기네스북 / 스티브 머리, 조선북스, 2008.
3. 두뇌월드 큐 1, 2 / 이수경, 꿈소담이, 2008.



토비의 특별한 여름

발레리 호스 | 주니어김영사 | 2008 | 177p.
이용대상 : 초등 5~6
주제 : 삶에 대한 믿음이 주는 기적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최혜숙

『토비의 특별한 여름』은 한 소년이 믿음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성장 소설이다. 토비는 어른들의 무릎밖에 보이지 않던 어렸을 적부터 암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휴양 차 놀러 온 시골에서 암이 재발한 것을 발견한다. 암을 치료하는 과정은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 한다. 토비는 자꾸만 재발하는 암 때문에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여러 번 겪으면서 삶에 대한 믿음과 희망도 잃어 버린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는 고통스러운 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다짐한 토비에게 특별한 친구가 생긴다. 한때 유명한 시인이었던 펄 할머니. 남편이 죽은 후 믿음을 잃어 시를 더 이상 쓰지 않는 펄 할머니는 토비를 아픈 아이로 보지 않고 토비에게 시를 읽어 주며 토비의 지친 마음을 위로한다. 할머니의 암소 '꽃님이'의 죽음을 겪으며 토비는 죽음이 두려운 것만은 아니며 살아 있는 모든 것에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임을 알게 된다. 서로 마음을 열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할머니와 토비는 서로에게 삶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용기를 준다. 그리고 그 용기로 할머니는 다시 시를 쓰고 토비는 항암 치료를 받기로 한다.

누구나 살면서 몸이나 마음이 아픈 일을 겪게 된다. 토비의 이야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친구나 가족들의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려주고 있다. 또한 죽기 전까지 갖고 있어야 할 삶에 대한 믿음이 발휘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다.

청소년을 위한 매혹적인 작품을 많이 썼다는 작가의 이력이 무색하지 않게 충분히 감동적이고 잔잔한 소설이다. 죽음과 삶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이들과 함께 읽어 보기를 추천한다.



최악의 꿈

하나가타 미쓰루 | 주니어김영사
2008 | 184p.
이용대상 : 초등 3~4
주제 : 친구 · 우정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김혜정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내 옆에서 하루의 절반을 늘 나와 함께한 나의 짝들.

학창시절 매년 3월은 낯선 교실과 새로운 담임선생님, 반 친구들로 시작되었고, 그중에서도 짝은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였다. '내 짝은 누굴까?' 하며 천천히 반 아이들을 둘러보며 설레고 떨렸던 기억 그리고 어색하게 시작했던 새로운 짝과의 첫인사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경험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 『최악의 짝궁』의 가오루는 4학년이 되자 울상이다. 아이들에게 칭 뵈고, 제대로 발음도 못 하고, 지저분한 소메아와 짝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소메아에게 가오루는 쌀쌀맞고 무섭게 대하지만, 소메아와 가까이 지내면서 곧 소메아를 이해하고, 좋은 아이라는 걸 알게 된다. 한편 소메아는 공부도 운동도 잘하는 예쁜 가오루가 점점 좋아진다. 모든 아이들이 자기를 괴물 보듯 피하지만 가오루만은 소메아의 잘못된 점을 고쳐 주고, 다가와 친구가 되어 주기 때문이다. 모범생인 가오루는 항상 일로 바쁘신 부모님의 무관심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소메아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아기 다루듯 어리게만 봐 주는 자신을 친구들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는 아이였다. 이런 가오루와 소메아가 짝이 되어 가깝게 지내면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서로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나의 초등학교 시절, 유난히 장난이 심하고 친구들을 잘 괴롭히는 아이와 짝이 된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짓궂은 장난에 많이 싸우고 화도 났지만, 나중에 다시 짝을 바꾸는 날이 되자 헤어지는 것이 몹시 섭섭했을 정도로 많이 친해졌던 기억이 난다. 장난이 심한 개구쟁이 짝, 말수는 적었지만 다정한 짝 등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내 짝궁들 덕분에 사람을 알고, 우정을 배웠으며, 또 나의 소중한 친구가 되어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준 것 같다. 『최악의 짝궁』은 같은 반에서 싫어하는 친구가 있거나 혹은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이다.

주제관련도서 ▶ 삶과 죽음을 생각해요

1. 잘가 개구쟁이 스티븐 / 미셸 에드워즈, 시공주니어, 2008.
2. 잘 가라, 내 동생 / 빌리 슈에즈만, 크레용하우스, 2007.
3. 천국의 색연필 / 코야마 미네코, 파랑새, 2007.

주제관련도서 ▶ 그 아이와 친구 되기

1. 내 짝궁 최영대 / 해안선, 재미마주, 1997.
2. 까막눈 삼디기 / 원유순, 웅진닷컴, 2000.
3. 짝짝지 / 강무홍, 사계절, 2001.



큰 늑대 작은 늑대

나딘 브뤼코슴 | 사공주니어 | 2008 | 36p.
이용대상 : 유아
주제 : 우정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유승림

어린이실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던 것 같다.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 아이가 대출 데스크 바로 옆 책상에 가서는 “여기 내 자리야!” 하더니, 조금 전에 자신이 앉았던 자리에 앉은 아이를 밀어내고 앉는다. 나는 ‘자기 자리가 어딴데, 빈자리에 앉지. 참 이상한 아이네’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잠시 후 둘이 장난치며 손을 잡고 어린이실을 나가는 모습을 보고 웃음 짓던 생각이 난다.

요즘에는 형제, 자매 없이 홀로 자라는 아이들이 대다수이고 그로 인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예전보다는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가족이 아닌 낯선 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어떻게 먼저 말을 건네야 할지 그 아이들에겐 익숙하지 않다. 그때 그 아이도 자신의 방식대로 친구 사귀기를 시도한 것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이 책은 친구 사귀는 방법에 서툰 요즘 아이들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친구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언덕 위 나무 아래 혼자 살고 있던 큰 늑대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작은 늑대가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웠다. 자기보다 더 힘이 세거나 운동을 잘할까 봐 경계하기도 했지만 가끔은 친절을 베풀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 차츰 작은 늑대의 존재감이 느껴질 때쯤, 작은 늑대가 보이지 않았다. 큰 늑대는 처음으로 슬픔을 느꼈고 누군가가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는 작은 늑대가 돌아오면 잘해 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은 다시 만나게 되었고, 서로에게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한다.

이 책은 우리 아이에게 친구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고 특별한 인연을 만드는 법을 들려줄 수 있는 훈훈한 동화로 유화 기법으로 그려진 그림이 매우 인상적이다. 찬바람이 부는 요즘, 읽는 이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선물로 『큰 늑대 작은 늑대』를 자신 있게 추천한다.



이야기 아저씨 청계천 징검돌

원유순 | 아이앤북 | 2008 | 119p.
이용대상 : 초등 4~5
주제 : 문화·역사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강수연

몇 년 전 서울 청계천이 복원되었을 때 온 국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오래도록 소외되고 버려졌던 청계천과 그 주변 일대가 그렇게 근사하고 멋있게 재탄생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계천은 서울 시민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꼭 둘러보고 싶은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여기 청계천 징검돌 아저씨의 옛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계천은 단순한 냇물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기쁨과 애환이 함께 서려 있는 삶의 터전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수백 년을 살아온 징검돌 아저씨는 오랜 세월 동안 광통교, 수표교, 효경교 등의 다리를 거치면서 그 냇가로 흘러드는 많은 물건들을 접하게 된다. 절름발이 곰단 아가씨를 주인으로 두었던 꽃신의 슬픈 사연과 혼자 잘난 척 주변의 연들을 끊어버리다 결국 더 큰 연에 의해 자신도 냇가로 떨어지게 된 방패연의 사연은 그 당시의 삶의 모습과 인간사를 엿보게 한다. 또한 일본군의 총알받이가 되기 위해 징집되어야 했던 삼돌이와 열 살배기 예쁜이 남매의 이별은 징검돌 아저씨에게도 큰 아픔이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징검돌 아저씨는 해방과 6·25전쟁 등을 함께 겪어야 했고 그러는 동안 수많은 판잣집이 형성된 청계천은 오물과 악취의 온상이 된 채 버려졌다. 오랜 세월을 견디며 살아온 징검돌 아저씨는 결국 새롭게 복원된 청계천에서 반쯤은 물에 몸을 담그고 반쯤은 따뜻한 햇볕을 바라보는 새로운 징검돌이 되었다. 지난날 빨랫감을 들고 냇가로 찾아들었던 한 아주머니와 딸아이의 징검돌이 되었던 것처럼, 아저씨는 이제 둥글납작한 아저씨로 다시 태어나 그때처럼 꼬마 아이들의 징검돌이 되어 주고 있다.

우리가 주변에서 늘 대하는 장소에 오랜 세월의 흔적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다고 생각하면 그곳이 더욱더 신비롭고 색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우리 친구들도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청계천에 한 번 놀러 가 보면 어떨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징검돌 아저씨를 만나 그 옛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소곤소곤 들어보면 재미있을 것이다.

주제관련도서 ▶ 따뜻한 우정 이야기

1. 곱슬곱슬 머리띠 / 이현영, 사계절, 2006.
2. 나랑 친구 할래 / 크리스틴A.애덤스, 비룡소, 2006.
3. 친구야 어딴니 / 클라우디아 루에다, 영교출판, 2008.

주제관련도서 ▶ 우리의 문화유산과 생활 풍습 엿보기

1.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 한도훈, 온누리, 2008.
2. 늘보 가족 검은 바다로 가다 / 양승현, 아이앤북, 2008.
3. 피양랭면집 명옥이 / 원유순, 웅진주니어, 2007.



쓸모 있는 자원 쓰레기

한미경 | 주니어 김영사 | 2008 | 139p.
이용대상 : 초등 전학년
주제 : 환경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미영



교과서 속 구석구석 우리 문화재

서찬석·신응섭 | 계림북스 | 2008 | 227p.
이용대상 : 초등 5~6
주제 : 문화재 · 우리 문화유산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영우

나는 얼마 전 휴대폰을 새것으로 바꾸었다. 사용하기 불편했다기보다는 디자인과 기능이 떨어져 새로운 것으로 바꾸게 되었다. 요즘은 어떤 것이든 새로운 디자인이 출시되거나 조금이라도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바로 새 물건으로 바꾸는 일이 많다. 그만큼 버리게 되는 한 물건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버리는 쓰레기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오염이 되어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다들 잊은 채 살아간다. 이 책은 대충 쓰고 쉽게 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 주어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해 준다. 환경 관련 책은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이 책은 한 단원씩 읽으면서 호기심과 놀라움을 가질 수 있다.

‘쓰레기’ 하면 더럽다, 지저분하다, 냄새가 지독하다 등을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더럽고 지저분한 쓰레기도 쓸모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쓰레기 중에는 새로운 자원으로 변신하여 아름다운 동산이 되기도 하고 에너지로 재활용될 수도 있으며, 부품만 바꾸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반면, 우리가 포장지로 사용하는 비닐은 태우면 다이옥신으로 변하여 공기 중에 돌고 돌아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와 병을 유발한다. 이밖에 옛날 사람들의 각종 재활용 방법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파리 이야기도 있어 더럽고 지저분한 쓰레기 속의 비밀을 알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 책은 각 단원이 동화형식의 이야기, 쓰레기가 들려주는 이야기,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등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재미있고 쉽게 읽을 수 있으며, 사진과 함께 실어 현장감을 살렸다.

내가 애장하는 책 중에는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가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너무 문화유산에 무지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이야기 솜씨에 매료되었던 기억이 난다.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꼭 책 내용을 숙지해 책에서 소개되었던 문화유산을 둘러보며 내가 아는 내용인 양 알려주고 싶다고 다짐했었다.

『교과서 속 구석구석 우리 문화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체험학습을 동행할 어른들까지 함께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로 서울·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등 여섯 개 지역의 문화재를 구석구석 조사해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화재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목적으로 쓰였으며, 우리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가치를 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40가지의 국보와 보물, 사적이 생생한 사진과 함께 구성되어 있어 문화재에 담긴 역사, 설화 등 숨은 이야기거리를 소개해 책에 친근하게 접근하도록 도와준다. 문화재마다 ‘보물찾기’라는 코너를 통해 문화재 구석구석을 한 컷 한 컷 포착해 역사 속에 살아 숨 쉬는 흔적들을 보여 주고 있으며, 낯선 명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에 여행과 체험학습 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각 문화재 소개 끝 부분에 구성된 ‘용주사에 정조가 심은 나무가 있다?’, ‘조선시대에 최고의 굴욕 사건이 있었다?’, ‘난중일기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 등 호기심을 유발하는 질문은 고루하다고 느끼는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흥미롭게 전개해 주어 책 읽는 재미를 더한다.

많은 어린이들이 이 책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 문화재를 알고 배우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았으면 한다.

주제관련도서 ▶ 더럽지 않은 쓰레기 이야기

1. 재활용도사 종이 / 캐런 트래포드, 현암사, 2008.
2. 찌푸린 지구의 얼굴 - 지구 온난화의 비밀 / 허창희, 풀빛, 2008.
3. 쓰레기의 행복한 여행 / 제라드 베르톨리니, 사계절, 2007.

주제관련도서 ▶ 우리 문화유산, 문화재

1. 문화재를 알면 역사가 보인다 / 장하영, 애플비, 2008.
2. 우리 문화재 속 숨은 이야기 / 고제희, 문예미당, 2007.
3. 어린이 문화재 박물관 / 문화재청, 사계절, 2006.



요즘 30대 후반이나 40대 아빠들은 힘들다. 예전 아버지들은 가족을 위해 돈만 벌면 되고 아이들 교육과 집안일은 여자가 알아서 하는 가부장적인 교육을 받아왔지만,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현실은 아내와 더불어 동등하게 일은 물론 집안일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아이들과도 친구처럼 잘 놀아주는 가정적인 아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바뀌고 점차 가족 구성원 각각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빠는 당연히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경제력 없는 아빠는 더 이상 가족 내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오히려 아내와 아이들에게 귀찮은 존재로 여겨진다. 더군다나 집안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잠만 자면서 식사도 챙겨줘야 한다면, 아이들 눈에 아빠는 엄마만 힘들게 하는 아주 못된 아빠로 전락하고 만다.

이 책의 주인공 지수도 마찬가지다. 실직한 아빠가 못마땅하고 집에서 꿈쩍도 않는 모습이 너무 밉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구석진 계단에 담배꽂초가 수북이 담긴 자신의 컵을 발견하게 되고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워야만 하는 아빠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파온다. 지수와 동생에게 따뜻하고 환한 방을 갖게 해준 사람은 바로 아빠인데 집안 어디에도 아빠만을 위한 장소는 없는 것이다. 미안한 마음에 아빠의 낮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지수는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다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아빠를 발견하게 된다. 그동안 바쁘신 엄마 대신 아빠가 우렁이각시처럼 자기들 몰래 집안 청소를 해온 사실을 알게 된 지수는 한동안 아빠를 지켜보다 조용히 되돌아 나온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동안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면서 눈시울이 젖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껏 당연하게만 느껴왔던 아빠의 존재와 노고에 대해 한 번쯤 되돌아 볼 수 있게 만든 정말 마음 따뜻한 동화이다.



생각이 말을 할 때

엘레나 로엔탈 | 중앙출판사 | 2008 | 117p.
이용대상 : 초등 5~6
주제 : 생각 표현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채성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명분으로 나의 진짜 속마음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척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거라 여겼던 내 생각이 목소리가 되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당황함, 창피함, 화남 등 여러 감정이 뒤섞여 시골벽적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 책은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봤을 '생각이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기발한 상상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지지오는 오늘도 늦게 일어나 지각하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전속력으로 학교로 뛰어간다. 그런데 교실 복도에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복도에는 분명히 지지오 외엔 아무도 없이 텅 비어 있는데 말이다. 그리고 교실 안, 은행, 시청, 급기야 도시 전체에까지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떠돌아다니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생각들이 말이 되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일순간에 도시는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생각이 말을 하는 현상을 처음 발견한 지지오와 유일하게 생각이 말을 하지 않는 베르노콜리 중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뇌를 연구하는 프레우돌리 박사를 찾아가게 된다.

생각이 말을 하게 된다면, 아마 용기가 부족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며 반기지 않을까? 부끄럽고 자신 없어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생각만으로 말이 되어 상대방에게 전해질 테니까. 하지만 내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불쑥 튀어나온 말이 된 생각으로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이 책은 기왕 생각을 하려면 긍정적인 좋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에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히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주제관련도서*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본 아빠의 모습

1. 아빠랑 둘이서 / 마를리스 바르델라, 보물창고, 2005.
2. 아빠 좀 빌려주세요 / 이규희, 푸른책들, 2007.
3. 우리 아빠가 최고야 / 앤서니 브라운, 킨더랜드, 2007.

주제관련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1. (어린이를 위한) 긍정의 힘 / 이상화 · 정성란 · 한혜선, 두란노, 2006.
2. 마음 / 김정홍, 아이앤북, 2008.
3. 긍정 습관 / 정미금, 아이앤북, 2008.



레모네이드 전쟁

캐롤린 데이비스 | 개암나무 | 2008 | 216p.
이용대상 : 초등 4~5
주제 : 경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이미경



세상의 아이야, 너희가 희망이야

베르나르 베르베르 외 9명 | 푸른나무
2007 | 97p.
이용대상 : 초등 전학년
주제 : 어린이 권리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김석주

일반적으로 책을 고를 때는 책의 표지나 목차, 저자의 말 등을 참조하여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 나는 이 책의 표지와 목차를 살펴보면 중독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문학 작품의 목차가 아닌 어느 경제지에나 있을 법한 파트너십, 가격 인하, 위기관리 등의 경제용어가 가득했다.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강한 오빠 에반과 수학과 상술에 강한 동생 제시는 어느 날 학교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된다. 제시가 성적이 좋아 4학년으로 월반을 하게 될 것이라는 편지로 두 아이의 갈등은 시작된다. 에반은 동생과 같은 반이 된다는 상황에 당혹해 하며 마음 상해한다. 그러나 동생 제시는 오빠가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했는지 전혀 눈치 채지 못한다. 서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에반과 제시의 레모네이드 전쟁이 시작된다.

에반과 제시, 두 아이가 서로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과 서로에 대해 이해해 나가는 과정과 배려를 배울 수 있으며, 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용어와 접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새로운 경제용어를 알기보다는 순수한 문학 작품을 읽는 즐거움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학 작품, 즉 이야기 글을 읽음으로써 우리 아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배울 수 있으며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된다. 설명글만 읽는 아이들의 경우 성적은 좋으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책을 통해 책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책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권리’란 무엇일까? 사전을 살펴보면 ‘나라·사회·단체 등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누리는 혜택, 또한 법률이 보호하려는 이익’을 말한다. 『세상의 아이야, 너희가 희망이야』는 어린이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짧은 동화와 시로 소개하고 있다. 건강할 권리, 가족을 가질 권리,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정체성의 권리, 먹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평화의 권리, 표현의 권리, 보호받을 권리, 평등의 권리 등에 대해 프랑스 작가 열 명이 동화와 시 에세이 등을 썼다.

어린 친구들은 위에 나열된 권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보거나, 돈을 벌기 위해 학교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유리창 닦기를 해 본 적이 없을 테니까. 하지만 세상의 여러 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거나,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이 많이 있다. 이 어린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부하기도 싫고, 학원가기도 싫는데 교육을 받는 것이 권리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란 나라에는 학교가 없어 공부하고 싶어도 못 하는 친구들이 있다. 제1장 건강할 권리부터 차근차근 읽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

이 책을 다 읽었다면 동요 가사처럼 온 세상 어린이가 희망을 품고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주제관련도서 ▶ 경제 동화 이야기

1. 레몬으로 돈 버는 법 / 루이스 암스트롱, 비룡소, 2002.
2. 열두 살에 부자가 된 카라 / 보도 새퍼, 올파소, 2001.
3. 나의 첫 사업 도전기 레모네이드를 팔아라 / 빌 랜치, 어린이중앙, 2006.

주제관련도서 ▶ 우리들의 권리

1. 우리들의 인권선언 / 기타 아키토, 미래M&B, 2006.
2. 평화는 힘이 세다 / 로라 자페, 푸른숲, 2005.
3. 평등할 권리 / 모린 오코너, 승산, 2006.

엄마, 할머니가 이상해요!



엄마, 할머니가 이상해요!

이자벨 로시블 | 문학동네 | 2007 | 157p.
이용대상 : 초등 4~5
주제 : 치매 · 가족애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강영희

주인공 앙투안의 할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다. 할머니는 넓은 테라스와 근사한 파란색 수영장이 있는 집에 사신다. 아침마다 수영하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노란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산책하신다. 할머니의 음식 솜씨는 세계 최고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 밀가루를 사와야겠다고 자전거를 타고 가셨는데 밀가루가 아닌 설탕을 들고 터벅터벅 걸어오시고, 주인공 앙투안을 옥타브라 부르시고……. 결국 가족들은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하고 앙투안은 토요일마다 요양원으로 가서 할머니를 만나야 했다. 그런데 앙투안은 이 모든 게 싫다. 바지에 똥을 싸는 할머니,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할아버지, 시체처럼 잠만 자는 할머니, 요양원에는 이상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득하다.

“나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늙는다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늙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앙투안이 점차 현실의 할머니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저자는 우리에게 늙는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의 메시지를 전한다. 주인공과 할머니를 통해 치매 가정의 겪을 수 있는 갈등을 보여주고, 독자인 아이들에게 치매라는 병의 특징과 가족애라는 극복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생각해 보면 가정마다 겪게 되는 많은 갈등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특효약은 가족 사랑이 아닐까? 앙투안의 깨달음도 이것이 아니었을까.



나한테 화학이 쏟아져!

김희정 | 토토북 | 2008 | 133p.
이용대상 : 초등 4~6
주제 : 화학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미영

일상생활에서 화학이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나 될까?

세상은 전부 화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은 왠지 어렵게만 느껴지는 과목이다. 많은 원소기호며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을 막연히 암기해야 했던 기억이 난다.

『나한테 화학이 쏟아져!』는 정빈이라는 등장인물이 학교생활과 놀이터에서 갖게 되는 궁금증을 쉽게 풀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생활 속의 화학 이야기를 하나하나 접하게 된다.

『우리를 둘러싼 화학세상』에서는 개성 있는 알갱이, 온도에 따라 변신하는 요술 같은 물, 불꽃놀이의 예쁜 색깔들의 비밀, 꼬불꼬불 파마머리의 비밀 등 재미있는 사실들을 알 수 있다. 『몸속의 화학세상』에서는 요즘 제일 큰 관심사인 키 성장과 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지 등의 각 영양소의 역할과 우리 몸속의 지휘자인 호르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준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화학세상』에서는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하늘을 나는 자동차, 노트 없는 세상, 나노 과학 등에 대해 쉽고 흥미롭게 설명해 주고 있다.

과학자들이 알아낸 화학세상의 이야기는 재미있고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 어렵게만 느껴진다. 『나한테 화학이 쏟아져!』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화학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중요 부분은 강조체로 표현하고 있고, 화학용어를 빨간 글자로 달리하여 빨리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읽으며 생활과 학에 쉽게 눈을 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주제관련도서 ▶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1. 할머니의 꽃무늬 바지 / 바버라 슈너부시, 어린이작가정신, 2008.
2. 우리 할머니는 달라요 / 수 로우슨, 봄봄, 2005.

주제관련도서 ▶ 어린이를 위한 화학책

1. 상위 5%로 가는 화학교실 / 신학수, 스킨라, 2008.
2. 보일의 화학노트 / 김기정, 녹색지팡이, 2007.
3. 세상에서 제일 새콤달콤한 화학책 / 최미화, 씽크하우스, 2008.

북스타트 운동

태어나면서 처음 사귄 친구, 책!

글·이승희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 사서

북스타트 운동의 유래

● 15여 년 전 책과 사람을 맺어주는 목적을 가진 영국 자선 단체인 북트리스트의 어린이 담당 부장이었던 웬디 쿨링은 유아 학교를 방문해 4, 5살짜리 어린이 몇 명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곳에서 아이들이 책을 펼 줄도 모르고 책장을 넘기는 것도 익숙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된 후, “어떻게 하면 모든 어린이가 어릴 때 책을 만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에 빠진다. 그리고 책이 담긴 가방을 이제 막 부모가 된 사람들의 손에 쥐여 주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다. 이 아이디어가 바로 ‘북스타트(Bookstart) 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 1992년 영국에서 북스타트 운동이 출범했을 당시 사람들의 주요 관심은 운동의 명칭이 말해주듯 ‘책(book)’이었다. 아기들로 하여금 아주 어려서부터 책과 친해지게 해 주면 자라서도 책을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당시 이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그렇게 웬디 쿨링과 북트리스트에 의해 영국의 버밍햄 지역에서 시작된 북스타트 운동은 초기에는 버밍엄 대학, 사우스 버밍엄 보건소, 버밍엄 공공도서관 등의 제휴와 자선단체의 후원을 받아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보건소와 같은 버밍햄의 야들리 그린 메디컬 센터에서는 생후 7~9개월이 지난 유아를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하는데, 건강검진에서 아이의 청각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메디컬센터는 아이의 부모에게 그림책과 독서 요령 책자가 들어 있는 꾸러미를 선물하며 북스타트 운동을 시작했다. 면포로 만들어진 가방 꾸러미는 도서관에 초대하는 초청장과 두 권의 영아도서 그리고 아름다운 삽화가 담긴 상담 자료로 구성되었다. 그림책은 촉감 좋은 실로 짠 것이었으며 책을 흔들면 장난감처럼 재미있는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 책은 친한 것, 재미있는 것, 좋은 것이라는 느낌이 자연스레 생기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놓았다고 한다. 그렇게 아기와 가장 가까운 엄마와 아빠가 한 가정에서 아기와 함께 책을 보는 멋진 일이 시작된 것이다.



● 영국에서 북스타트 운동이 시작되던 첫째, 버밍엄 대학은 북스타트 꾸러미를 선물 받은 부모와 아기 양육자 300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효과를 연구했고, 연구 결과는 놀라웠다. 어려서부터 책과 친해진 아기들은 책을 좋아하는 아동으로, 청소년으로, 어른으로 성장하고, 어려서부터 그림책, 소리책, 이야기책을 가까이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보다 집중력이 높고 언어습득 능력이 훨씬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기의 도서관 등록, 북클럽 이용, 일반적인 책 사용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북스타트 운동은 어린 시절 형성된 습관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좋은 일례이며, 책을 가까이하는 습관의 출발점이라는 의의가 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등 약 20여 개의 나라로 확산되고 있다.

● 영국에서 시작된 북스타트 운동

1992년 영국의 전직 여교사이자 도서관 사서였던 웬디 쿨링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의미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내놓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건강진단을 받으러 보건소에 오는 아기들에게 그림책이 든 가방을 무상으로 선물하자는 제안이 그것이다.



웬디 쿨링(Wendy Cooling)

교사, 사서, 저술가. 1992년 최초로 북스타트 아이디어를 낸 뒤 10년간 이 운동을 영국 전역에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일본에서의 북스타트 출범도 지원했다. 현재 영국 북스타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세계 북스타트 운동 로고



한국의 북스타트 운동

● 한국의 북스타트 운동은 2003년 4월 1일 서울 중랑구에서 처음으로 시범 실시되었다. 실행 주체로 순수 민간 기구인 '북스타트 한국위원회(Bookstart Korea)'가 조직되었고, 사업의 출발을 돕기 위한 지원센터로 민간이 주축이 된 '한국 북트러스트(Booktrust Korea)'가 구성되었다. 시범 기간 동안에는 1세 미만의 영아 930명이 책 꾸러미를 선물 받았다. 그리고 2008년 11월 14일, 서울 무역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북스타트 운동 전국대회를 개최하였다. '북스타트 코리아'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이 후원한 이 행사는 그간 지역별로 진행되던 활동을 전국 단위로 통합한 첫 번째 모임으로 '북스타트의 전국적 확산'과 '북스타트 시행 지역 간의 정보 교류'를 위해 마련되었다.

'아기 때부터 책과 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워 보자'는 북스타트의 취지 아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이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동을 전국화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처음 900명의 아기들에게 주어진 북스타트 책 꾸러미가 현재 14만 명의 아기와 부모들에게 전달되었다. 하지만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는 특성상 아직 북스타트의 혜택을 받지 못한 많은 아기들을 위해 지역 도서관, 보건소, 단체 등의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문해교육 수업하는 모습

신나는 한글교실

글 · 윤정화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사서

문해교육이란?

● 문해교육은 학습자에게 문해(文解)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종래의 문맹이란 개념은 단순히 문자를 읽고 쓰지 못하는 문자해독 능력의 결핍 상태를 의미했다. 문해란 반대로 문자해독 능력을 보유한 상태를 의미하며 현대에 와서는 단순한 문자의 해독 능력이나 읽기·쓰기·셈하기 능력의 보유수준을 넘어서 일상적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기본생활 기능이나 사회적 의식의 수준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신생국들의 문맹퇴치운동을 시도한 유네스코(UNESCO)는 문맹을 문맹과 반문맹으로 나누고, 문해를 최저

문해와 기능적 문해로 나눈 후 문해자와 반문해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 ① 일상생활에 관한 짧고 간단한 문장을 이해하며 읽고 쓸 수 있는 자를 문해자라 하며,
- ② 일상생활에 관한 짧고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는 있으나 쓸 수 없는 자를 반문해자라고 한다.

유네스코는 1962년 문맹교육전문가회의에서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문해자를 “집단이나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자이며, 2~3년간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수준에 해당하는 읽기·쓰기·셈하기의 기술을 가진 자”라고 정의했다.

문해교육의 시작 그리고 지금……

● 우리 도서관의 문해교육의 시작은 2007년 6월이다. 처음 문해교육을 실시할 때는 도서관의 위치가 농촌지역이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아 수강생을 쉽게 모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수강생 모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인근 초등학교와 문화원 등 이미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도 많았고, 문해교육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 수강생 확보가 쉽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전단 배포 및 현수막 제작은 물론 관내 노인정, 보건소, 시청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홍보 덕분인지 적지 않은 분들이 문해교육을 신청하였다. 꽃미남 손자분과 함께 와서 접수하셨던 70세 최고령 할머니, 한국인 남편과 수줍게 도서관에 들어와 접수하시는 외국인 어머니들, 자녀들에게 부끄럽다며 몰래 접수하시던 아주머니 등 다양한 분들이 문해교육에 참여해 주셨다.

ㄱ, 나, ㄷ, ㄹ…… 한글 기초부터 시작한 문해교육은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수준까지 수업이 진행되었다. 문해교육생들이 백일장 대회에 나가 상도 타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은행업무도 보고 길가의 표지판도 어려움 없이 읽는 모습을 보면 문해교육 사업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



현장학습

지난가을에는 국립수목원에서 현장학습을 실시했다. 수업의 연속이지만 도서관을 벗어나서인지 모두 소풍가는 아이처럼 설렘 가득한 모습이었다. 부슬부슬 가을비가 내리는 날이었지만 모두들 수목원 가이드의 설명을 경청하면서 나무 하나하나의 이름과 특징을 꼼꼼히 체크하며 즐거워했다. 수목원 견학을 마치고 모두 둥글게 둘러앉아 노래 부르고 어린 시절 소풍 가면 꼭 하던 수건돌리기와 보물찾기도 해보며, 오랜만에 동심에 젖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요리수업

한글교실을 하면서 웬 요리수업이냐며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요리책을 살펴보면 그림과 함께 요리 방법이 나온다. 한글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요리책도 하나의 한글수업 교재인 것이다.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요리수업이라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식빵, 야채, 치즈, 마요네즈 등 각종 재료를 넣어 만든 샌드위치로 허기진 배를 달래며 맛있는 수업시간을 보냈다.



백일장 대회

올해 희망경기 평생학습축제는 ‘배움의 향연! 학습의 길! 함께하는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리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렸다. 3일에 걸쳐 열린 이번 축제의 첫날, 성인문해 백일장이 열렸다. 이번 백일장을 위해 몇 주 전부터 선생님과 주제를 정하고 글을 다듬어 가면서 열심히 준비했다. 그 결과 여섯 명이 참가해 한 분은 당당히 은상을 받고 나머지 분들도 입상하는 등 자신의 글 솜씨를 뽐내셨다. 백일장은 문해교육생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한글교실 수업이 있는 날, 어느새 할머니들과 외국인분들의 쉽터가 된 듯한 도서관을 보며 도서관 이용자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강의실에서는 한글을 한 자 한 자 읽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어느 날은 노래 부르는 소리와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이렇게 도서관이 우리 사회에 소외되었던 분들의 배움터가 되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이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동화 속 나라 같은 일월초등학교 도서관

학교도서관, 수원교육청이 앞서갑니다!

글 • 이경희 경기도수원교육청 도서관 담당



북카페 같은 원천중학교 도서관

수원교육청 학교도서관에 와 보셨나요?

● 잡지에나 나올듯한 핑크빛 벨벳 소파가 여학생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예쁘고 세련된 느낌의 원천중학교 도서관, 마치 동화 속 나라에 온 듯한 분위기의 일월초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후 개관한 학교에 가보면 새롭게 쾌적한 모습으로 변모한 도서관을 쉽게 볼 수 있다.

1층 현관 가까운 곳이나 계단 가까운 곳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 중심 공간에 자리한, 예쁘고 깔끔하고 환한 입구와 친근한 안내데스크, 편안한 열람 좌석, 교수·학습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빔프로젝터 등 최신 정보화 기기와 다양한 장서를 갖춘 학교도서관을 수원 시내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걸어온 길

-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한 1차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수원교육청 산하 학교도서관이 새롭게 설치되고 리모델링되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년 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되었으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03년 3월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 학교도서관 지원팀이 신설되었고, 2004년 4월 수원교육청을 비롯한 25개 지역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지원팀이 신설되어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7년 1월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지원팀이 평생교육과로 부서 이동이 있었고, 2008년 2월 수원교육청(국단위 지역교육청)은 평생교육체육과로 부서를 옮겨 현재까지 학교도서관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크게 학교도서관 만들기, 학교도서관 담당자 연수 및 교육,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지원으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은 도서 지원, 사서 지원, 리모델링 지원, 학교도서관 지도점검 등의 세부사업으로 진행되었고, 학교도서관 담당자 연수 및 교육 사업은 학교도서관 담당 교사 연수, 담당사서 연수, 학부모 독서도우미 연수, 학교도서관업무지원시스템(DLS) 연수 등의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에는 독서캠프 및 독서교실 지원,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공모, 학교도서관 축제 한마당 등의 사업이 있다.

2008년까지 추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수원교육청 산하 학교도서관은 전체 134교에 134개의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100%의 설치율을 달성하였다. 또한 전체 134교 중 105교인 78.4%에 해당하는 학교에 전담인력(사서교사 4명, 계약직 사서 101명)이 배치되었다.

특히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교육협력체제 구축으로 수원시로부터 2005년 이후 매년 전체 174개 학교에 교당 3백만 원씩 도서구입비를 지원받아 2008년까지 총 18여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대응투자 요청으로 64교에 교당 5~6천만 원 내외의 대응투자로 총 33억 원을 지원받았다. 수원 관내 학교는 시 대응투자를 통해 교당 1억 내외의 충분한 예산으로 리모델링하여 전국 최고의 쾌적한 학교도서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이처럼 수원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학교도서관 만들기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학교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100% 설치된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쾌적한 환경으로 새로 태어난 학교도서관을 학생과 교사가 찾아가는 학교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해 수업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이 다른 지역 교육청과 차별화하여 추진한 특색 있는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학교도서관업무지원시스템(DLS) 연수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연수



학교도서관 담당사서 연수



학부모 도우미 연수



학교도서관 e-소식지



활성화 지원단 협의회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다양한 노력

●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단과 e-소식지

올해 4월, 관내 초·중학교 사서교사 및 사서로 구성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단'을 발족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단'은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자료 개발과 보급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 시 추진위원으로 활동한다. 특히 학교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및 교육 방법을 제시한 '꿈 가득, 희망 아이콘! 학교도서관 e-소식지'를 한글파일 형태로 발간하고 각 학교에 전자문서로 발송하여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소식지는 지난 6월에 창간하여 월 1회씩 총 6호를 발간하였으며, 앞으로 e-소식지가 학교도서관 활용 정보 공유와 실천을 돕는 좋은 매개체가 되었으면 하는바람이다.

●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프로그램 강화!

학교도서관의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독서력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학교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 지역교육청 및 공공도서관 연계 특화사업 '도서스카우트 책누리단'

초등학교는 전담인력 배치율이 높고 학부모 도우미의 적극적인 지원과 어린이들의 독서 흥미도 높아 학교도서관의 활용률이 높은 편이다. 반면 중학교는 전담인력 배치율이 낮고 학부모 도우미 역할도 줄어들어 도서관 운영을 도서관이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서관 학생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독서 흥미를 갖도록 하고 학교도서관 이용률을 증대하고자 '책누리단'을 결성하게 되었다. 특히 지역교육청 및 공공도서관 연계 특화사업으로 공모하여 충분한 예산을 지원받아 '책누리단' 활동에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책누리단 활동은 발대식, 지도교사 연수, 공공도서관 체험활동, 독서교실, 독서토론회 등 참여와 활동 중심의 진행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학교 도서관으로서의 활동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책누리단' 활동이 내년에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정착하여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독서문화 아이콘, 학교도서관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 수원교육청은 앞으로 학교도서관의 서비스 영역 확대와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을 연구하고 다양한 시도와 추진으로 학교도서관 발전에 더욱 앞장서고자 한다. 학생들이 책 읽는 맛을 알고 책 속에 폭 빠져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고 통합적 사고능력 등을 키울 수 있는 21세기형 창의적, 자율적 인재개발을 위한 교수·학습지원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이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프로그램

● 여름방학 독서캠프 지원

〈 2008 독서캠프 선정교 〉

목 적 : 방학기간 중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도서관 활용 유도

지원방법 : 독서캠프 신청 학교 중 선정

지 원 금 : 교당 100만 원, 9교 지원

운영성과 : 기존 독서교실과는 차별화되는 1박 2일 이상의 활동과 참여 중심의 독서프로그램 진행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적극적인 참여 유도, 장학 자료 발간 및 배부로 일반화 유도

학교명	캠프명
송원초	책과 함께 떠나는 신나는 여름방학 독서캠프
수원초	우리학교 사랑방, 도서관으로 가자!
수일초	책 속에서 뛰어놀자! 수일 독서캠프
울진초	책 따라 길 따라 책과 함께 떠나는 강화 탐방
정자초	독서치료 프로그램으로 역사와 나를 찾아 떠나는 독서 여행
파장초	출판사? 책 만들기!
동성중	매현서랑에서 놀래?
매현중	책과 함께 떠나는 1박 2일
수원제일중	문학과 함께 떠나는 실례마을 걷기 여행

● 독서 감상화 및 책 광고 그리기 대회 개최

목 적 : 책 읽은 느낌을 자신만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통해 그림과 광고로 표현하여 독서에 대한 즐거움과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 유도

대 상 : 초등 - 독서 감상화 그리기, 중등 - 책 광고 그리기

운영성과 : 기존 공모전에서 대회로 개최하여 공정성 및 신뢰도를 높였고 독서 후 창의적 표현으로 독서 효과 증대

● 학교도서관과 함께하는 독서 골든벨 개최

목 적 :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학생들의 독서력 증진 및 사고력·문제해결력 신장

대 상 : 초등 - 4학년, 중등 - 1, 2학년

운영성과 : 다양한 주제의 책을 골고루 읽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독서의 폭을 넓히는 계기 마련

● 수원교육가족의 독서마인드 제고를 위한 <독서경영아카데미 운동>

목 적 : 독서경영을 통한 혁신 마인드 제고 및 자기 계발 동기를 부여하고 독서를 통해 획득된 지식 자신을 업무에 활용, 업무 성과를 극대화하고 조직의 경쟁력 강화

대상 및 시기 : 청내 직원, 연중

운영내용 및 성과 : 2007 청내 교직원 대상 <독서경영 아카데미 운동> 시작

2008 지속적 운영으로 수원교육가족의 독서경영 마인드 확산, 업무역량 및 조직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 자율독서 및 틈새독서 10분 운동, '함께 읽어요' 도서 추천, 독서활동 우수자 시상 등)



독서캠프 지원학교, 정자초등학교



독서 감상화 및 책 광고 그리기 대회



학교도서관과 함께하는 독서 골든벨

이용자가 선택한 즐거찾는 책 FIVE

대출 기간 2008.10.1 ~ 2008.12.31

일반

(맛을 아는 여우맘의) 아이밥상 | 김지현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 공지영
두 남자의 산티아고 순례일기 | 전용선 글, 황우섭 그림
여행할 권리 | 김연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코맥 매카시



어린이

로스트 12: 빙하시대로 사라지다 | 주디스 그린버그
자신감 있는 긍정적인 아이 자신감 없는 부정적인 아이 | 송윤신
자신있게 도전하는 아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아이 | 전영신
어린이를 위한 시크릿 | 윤태익 글, 김현태 그림
우당탕탕, 할머니 귀가 커졌어요 | 엘리자베트 슈티에르트



일반

개밥바라기 별 | 황석영
(고우영) 수호지 1 | 고우영
(비비천사의) 도쿄 다이어리 | 서윤희
단 한번의 시선 1 | 할런 코벤
하악하악:이외수의 생존법 | 이외수



어린이

(셋 나만의) 비밀 다이어리 | 박지완
(Why?) 정보통신 | 조영선
로스트 1: 콧구멍으로 사라지다 | 주디스 그린버그
넌 정말 특별해 | 믹 매닝
(어린이를 위한) 적극적인 나 | 잭 캔필드



김포

중앙

평택

일반

기묘한 신혼여행 | 히가시노 게이고
씩수없는 며느리 VS 파란눈의 시아버지 | 전희원
트와일라잇 | 스테프니 메이어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흥가분하다 | 박경리
오늘 더 사랑해 | 선, 정혜영



어린이

터키에서 보물찾기 | 곰돌이 CO 글, 그림
왕 짜증나는날 | 아미 크루즈 로젠달
최악의 짝꿍 | 하나기타 미쓰루
도서관에 간 공주님 | 진느 윌리스
(판타지) 수학대전 | 그림나무 글, 그림



포천



일반

검은선 | 장 크리스토프 그랑제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 조앤 K. 롤링
테메레르 | 나옴이 노빅
눈먼자들의 도시 | 주제 사마라구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 | 정철진



어린이

고래들의 노래 | 다이안 셀든 글, 개리 블라이드 그림
도깨비 대장이 된 훈장님 | 장수명 글, 한명호 그림
(조선의 여길) 박씨부인 | 정출현 글, 조혜란 그림
어처구니 이야기 | 박연철
갑쟁이 월리 | 앤서니 브라운



광주



여주



일반

엔돌핀 프로젝트 | 박범신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 우용표
설득의 심리학 | 로버트 차일디니
소설가의 집 | 박완서
(대한민국 상식사전) 아고라 | 아고라 페인들



어린이

친구가 필요해 | 박정애
꼬마 할머니의 비밀 | 다카도노 호코
담배 피우는 엄마 | 류호선
화요일의 두꺼비 | 러셀 에릭슨
(빈대가족의) 별의별 아르바이트 | 이봉기



일반

바람의 회원 1, 2 | 이정명
완득이 | 김려령
(이와수 생존법) 하악하악 | 이와수
용의자 X의 헌신 | 히가시노 게이고
눈먼자들의 도시 | 주제 사라마구



어린이

하늘에서 달님이 뚝! 떨어졌어요 | 제바스티안 메센모저
학교는 즐거워 | 해리엇 지퍼트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 존 셰스카
도서관에 간 사자 | 미셸 누드슨
꽃이 피는 아이 | 엔 보이트 비치

한국의 아름다운 도서관을 꿈꾸다

글·함은경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사서



1



2



3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

● 얼마 전에 읽은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최정태 글·사진, 한길산 펴냄)에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아름다운 도서관들이 소개되어 있었다. 고전적이고 화려하면서도 위엄 있고 때로는 현대적인, 말 그대로 아름다운 도서관들에 감탄과 함께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도서관이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대학시절 교수님께서 직접 찍어 오신 외국 유명 도서관의 사진을 보면서 느꼈던 문화충격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때는 이론만 접하는 학생이었고 지금은 공공도서관 현장에 있는 사서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나 보다.

책에 소개된 아름다운 도서관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과거에는 왕실도서관 또는 귀족도서관이었으나 시류에 따라 공공도서관으로 변모하였고 도서관뿐만 아니라 박물관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과, 근현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건축한 것이 있다. 전자의 예로 유명한 도서관은 프랑스의 마자

린도서관, 독일의 안나 아말리아 공작부인 도서관,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체코 국립도서관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뉴욕 공공도서관, 미국 의회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왕실도서관인 규장각이 있으나 옛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내에 위치한 신축 규장각도 2006년부터는 한국학 연구원으로서 전문적 기능에 더욱 중점을 두어 대중에게 가까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고위층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이다. 서양의 공공도서관이 발전, 유지되는 과정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공통적인 요소이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사회고위층 및 기업인들이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을 가지고 내놓은 많은 기부금은 의식 있는 지도자의 정책과 맞물려 훌륭한



1, 2, 3. 뉴욕 공립도서관 4. 마드리드 국립도서관 5. 장크트 갈렌 수도원 도서관

도서관을 탄생시켰다.

도서관역사에서 너무나 유명한 인물인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520만 달러를 뉴욕 공공도서관 건축에 투자하였고, 미국과 영국에 2,500여 개의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무려 5천만 달러를 기부하였다. 그는 자선사업의 대상으로 도서관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중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기관으로 도서관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이유 없이 아무것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오직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도우며, 사람을 결코 빈곤하게 만들지 않는다. 도서관은 큰 뜻을 품은 자에게 책 안에 담겨 있는 귀중한 보물을 안겨주고, 책을 읽는 취미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수준의 취미를 멀리할 수 있게 한다.”

뉴욕 공공도서관은 ‘리더스 다이제스트’ 창간자인 드윌트 윌레스와 사업가인 프레데릭 로즈 등 개인 및 기업의 기부금으로 열람실 리모델링 및 과학·산업·비즈니스 전문도서관

(SIBL) 개관 등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캐나다의 밴쿠버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자발적인 도서관 재단이 있어 기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국 및 세계에 도서관을 확충함으로써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재단활동이 있다. 가장 유명한 예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지원 사업을 벌이고, 매년 열리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 ‘Access to Learning Award’를 수여하고 있다. 얼마 전에 국내에도 출간된 『히말라야 도서관』의 저자 존 우드도 ‘Room to Read’라는 자선단체를 세워 네팔, 인도 등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 책을 전하고 도서관과 학교를 지어 주고 있다.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

● 우리나라에도 기부금으로 지어진 도서관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단연 기적의 도서관이 떠오른다.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는 2003년 시민단체인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이



6, 7. 포르투갈 국립도서관



모든 생각은 기록을 통해 살아나며,
생각은 기록된 내용에 따라
천 년이 지나도 존재할 것이다.
- 실러

MBC 프로그램 '느낌표'와 함께 어린이전문도서관 건립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순천, 제천, 진해, 서귀포, 제주, 청주, 울산, 금산, 부평 총 아홉 곳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한 이 사업은 많은 기업 및 민간 참여를 이루어냈고 국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동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서대문구에 위치한 '이진아기념도서관'은 이진아 양이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인 이상철 씨가 딸을 기리기 위해 도서관을 짓고자 50억을 기탁하면서 건립되었다. 기부금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지원 아래 2005년 개관하였다.

요즘 포털사이트 N사에 들어가면 '해피빈'이라는 기부를 위한 공간을 볼 수 있다. 기부할 수 있는 분야도, 방법도, 금액도 매우 다양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서관'을 검색해 보니 도서관 개관 및 자료구입 지원을 호소하는 254개의 모금함을 찾을 수 있었다. 모금액은 소액이지만 도서관에 대한 누리꾼들의 사랑과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도서관의 진정한 가치

- 현재 미국 전역에는 약 1만 5천 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이 숫자는 맥도날드 햄버거의 전국 점포 수 1만 2천 개를 웃돈다. 미국 공공도서관 회원 수는 아마존 회원의 5배이며 미국인들이 도서관을 출입하는 횟수는 영화관에 가는 횟수의 2배가 넘는다. 미국인들은 스낵바에서 보내는 시간의 3배 이상을 도서관에서 보내며 매년 11억 명 이상이 도서관을 찾는다. 바로 이것이 미국의 진정한 힘의 원천이 아닐까.

세계 최고의 도서관으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국 의회도서관이 내건 주된 사명 네 가지 중에 "국가의 안녕과 미래의 발전에 도서관이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적·교육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다. 도서관이 교육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도 가지고 있음을 진작부터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도 이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소양 있는 정책결정자와 사회 고위층이 많아지길 바란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당장 10년만 살고 말 것도 아니지 않은가.

참고문헌

1.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 최정태, 한길사, 2006
2. 『공공도서관의 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 김선옥, 국회도서관보 제43권 제3호 통권 제323호, 2006
3.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 www.bookreader.or.kr
4.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www.gatesfoundation.org
5. 네이버 해피빈 happybean.naver.com

꿈을 꾸기라도 해 봐



“꿈? 그게 어떻게 네 꿈이야? 움직이지 않는데. 그건 별이지.
하늘에 떠 있는, 시도조차 못 하는, 쳐다만 봐야 하는 별.
누가 지금 황당무계 별나라 얘기하재?
꿈을 이루라는 소리가 아니야.
꾸기라도 해 보라는 거야.”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중에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당한 꿈이라도,

작심삼일이 될 계획이라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모두 모두 파이팅!

2009년 파이팅! ✨

Librarian
Talk

2009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설렘



2009년 새해에도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가 누구나 독서로 나아가게 하는 등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정보봉사과장 김지봉



하얀 눈을 보며 장작 벽난로 옆에서 느긋하게 책을 읽는 그림을 연상하듯, 그런 느긋한 새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나눌 거리는 느긋한, 산뜻한 새해를 기대합니다.

노재금



매년 12월은 아쉬움이 가득한 달입니다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기대감으로 설레기도 합니다. 올 한 해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충희



저물어가는 한 해, 아쉬움은 있지만 새롭고 다부진 각오로 2009년을 맞이할 준비를 서둘러야겠어요.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가 있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더 알찬 정보지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김영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는 더욱 풍요로워지고 단단해졌습니다. 다가오는 소의 해에도 느리지만 묵묵히 걸어가는 소처럼 우리 모두 힘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정주



200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느라 너무나 바쁜 연말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해를 기다리는 기대감이 있어 행복합니다. 2009년에는 저와 우리 가족도, 중앙도서관도,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도, 책과 도서관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도 2008년보다 훨씬 더 행복하기를.....

강명희



2009년, 참된 인생의 맛을 알게 된다는 그 문턱에 첫발을 디디는 해, 그래서 더욱 설레고 무게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열정적인 내가 되리라 결심해 봅니다.

유승림



비록 20대로서의 시간은 1년 줄어들지만, 좀 더 단단하고 성숙한 내가 되길 책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서가 되길 희망합니다. 2009년! 새롭게 변화된 도서관에서의 나날도 항상 행복하기를.....

김정미



26년 인생 중 가장 빨랐던 한 해를 보내고 2009년 기축년의 해를 맞이합니다. 소의 해를 맞아 소의 눈처럼 순수하고, 소의 끈성처럼 독심 있는 한 해를 보내길 다짐해 봅니다.

김미숙